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 유 경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 유 경

박유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세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와 어머니 191쌍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어머니는 설문지를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의 우울, 그리고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해 응답하였고, 유아는 연구자와의 대면 조사에 참여하여 구문의미이해력 및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PROCESS 매크로를 이용한 이중매개 모형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차원에서는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과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차원에서는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처벌적 반응과 심리적 고통 반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최소화 반응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차원에서는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은 정적 상관관계가, 처벌적 반응 및 심리적 고통 반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최소화 반응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과의 관련성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처벌적 반응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시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으로 이어져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발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차원의 기술 및 능력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유아, 갈등해결능력,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마음이론, 이중매개효과
학 번 : 2020-25589

목 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7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 7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개념 및 발달 ····· 7
2)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관련 요인 ····· 10
2.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 11
3.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 12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 12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 14
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 18

Ⅲ. 연구문제와 용어 정의 ····· 23
1. 연구문제 ····· 23
2. 용어의 정의 ····· 25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 25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25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 26
4) 유아의 마음이론 ····· 26

Ⅳ. 연구 방법 및 절차 ····· 27
1. 연구 대상 ····· 27
2. 연구 도구 ····· 30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 32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35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 35
4) 유아의 마음이론 ····· 37
5)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력 ····· 38
6) 어머니의 우울 ····· 38
3. 연구 절차 ····· 41
1) 예비조사 ····· 41
2) 본 조사 ····· 43
4. 자료 분석 ····· 45

Ⅴ. 연구 결과 및 해석 ····· 47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연구문제 1) ····· 47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연구문제 2) ····· 52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 56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 59
3)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 62
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 65
5)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 68

Ⅵ. 결론 및 논의 ····· 72
1. 결론 및 논의 ····· 72
2. 의의 및 제언 ····· 78

참고문헌 ····· 82
부록 ····· 100
Abstract ····· 133

표 목 차

<표 Ⅳ-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29
<표 Ⅳ-2> 조사대상에 따른 연구 도구 개요 ····· 31
<표 Ⅳ-3>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채점 범주별 점수 기준 ·· 33
<표 Ⅳ-4>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번호, 문항 수 및 신뢰도 ····· 40
<표 Ⅴ-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8
<표 Ⅴ-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 51
<표 Ⅴ-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54
<표 Ⅴ-4>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 55
<표 Ⅴ-5>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58
<표 Ⅴ-6> 어머니의 감점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 59
<표 Ⅴ-7>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61
<표 Ⅴ-8>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 62
<표 Ⅴ-9>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64
<표 Ⅴ-10>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 65

<표 Ⅴ-11>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67
<표 Ⅴ-12>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 68
<표 Ⅴ-13>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70
<표 Ⅴ-14>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 71

그 림 목 차

[그림 Ⅱ-1]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 ····· 10
[그림 Ⅱ-2] 가설 모형 ····· 22
[그림 Ⅳ-1] 연구 수행 순서 ····· 41
[그림 Ⅳ-2] 유아 대면 조사 모습 ····· 45
[그림 Ⅴ-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53
[그림 Ⅴ-2]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57
[그림 Ⅴ-3]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60
[그림 Ⅴ-4]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63

[그림 Ⅴ-5]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 매개모형 ····· 66
[그림 Ⅴ-6]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 69

부 록 목 차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 101
<부록 2> 유아 갈등해결능력 검사 ····· 125
<부록 3> 갈등 장면별 점수 빈도 및 평균 ····· 132

Ⅰ. 문제제기

갈등은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며, 유아 역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접하게 된다. 갈등에 대한 최근의 관점은 갈등을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때, 유아기는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인지적 능력의 기반이 길러지는 시기이며(Sandy, 2006), 유아가 갈등해결능력을 함양해 가는 것은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갈등해결능력은 갈등 상황 속에서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다(Kerr & Nelson, 2006).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전개 과정, 결과,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과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임수정, 이대균, 2015). 또한 갈등 해소는 회피나 강압이 아닌, 타협과 중재와 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Coleman & Deutsch, 2001). 이때 필요한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타인과 협업하는 동기 및 능력과 같은 사회적 관계 기술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Tomasello et al., 2012), 미래의 기술로는 대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는 또래와 관계를 맺고,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지성애, 김지은, 2016). 또한 유아는 수평적 관계 지위를 이루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권연희, 2012). 따라서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 중 또래 간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갈등해결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근저에 있는 사회인지적 발달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인지적 발달 요소 중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낙홍 외, 2019; 조성웅, 김낙홍, 2020; Randell & Peterson, 2009). 이때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는데(Carpendale & Lewis, 2004; De Jaegher et al., 2010; Moll & Tomasello, 2007; Perner et al., 1994; Slaughter & Repacholi, 2004), 구체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Mazzone & Nader-Grosbois, 2016). 이에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부모와 같은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후 초기 6년은 인간의 신체,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 양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Bornstein, 2019; Galinsky, 1981). 이 연구는 유아가 부모로부터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Clark & Ladd, 2000) 환경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은 구체적인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자원과 같은 사회정서적 측면의 개인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아동의 특징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요인을 고려함에 있어 공감, 우울과 같은 어머니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주목하였다(Christopher et al., 2013; Cummings & Davies, 1994; Hu et al., 2020). 하지만 부모의 인지적 차원의 기술과 능력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Coleman, 1988),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인지적 차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인지·언어적 자극 행

동과 사회·정서적 지지 행동을 높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혔다(Huang et al., 2022). 하지만 어머니의 구체적인 인지적 차원의 기술과 능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차원의 기술에 주목하여,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을 확장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인지적 차원의 기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을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 및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 설명과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조은영, 임정하, 2014; Dennis & Vander Wal, 2010). 인지적 틀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박정미, 탁진국, 2021; 정은선, 하정희, 2019), 타인과의 갈등관리를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여미정, 김완일, 2020; 이은화 외, 2021; 임정하 외, 2016).

현대사회는 사회적 변화가 매우 잦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머니 또한 개인의 삶과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때문에 각 상황에서 유연하게 인지의 틀을 전환하는 개인적 특징은 최근 양육에 있어서도 강조되고 있는 역량이다.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밝혔으며(홍예지, 202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Curran & Andersen, 2017).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맥락과 더불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이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Steinberg, 2005)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볼 때,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육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그 기제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와 인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작용과 관련되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Lemerise & Arsenio, 2000),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양육 행동 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가 갈등 상황에서 주로 경험하는 정서는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이다. 부모는 자녀의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슬픔, 두려움,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Dunn et al., 1991; Eisenberg et al., 1996). 실제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사회인지적 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가 긍정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Eisenberg et al., 1999; Garner et al., 1994). 이에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을 세분화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양육 행동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세히 나누어 탐색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이석호, 이주연, 2012). 또한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어머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육 행동보다는 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와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어왔다(Gottman et al., 1996).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관계가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가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밝

혔다. 먼저,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가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심리적 고통 반응과 처벌적 반응을 가장 크게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은 설명하지 못하였다(전미순, 이영애, 2009). 어머니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심리적 고통 반응 및 처벌적 반응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최소화 반응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전미순, 이영애, 2009). 어머니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최소화 반응과 처벌적 반응과의 관계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정명자 외,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는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는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Mazzone & Nader-Grosbois, 2016). 이를 통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았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더욱 풍부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인지적 차원의 개인적 특징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인지적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인지적 기술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에는 유아의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개인적 특징, 유아의 개인적 특징, 그리고 양육 간의 복합적 관계가 단일 차원에서 검증되어 왔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해석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을 적용 및 확장하여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을 촉진하고,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을 확장할 것으로 보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기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바람(desire)에 대한 이해와 다른 정신적 추론이 유아기 내내 발달하지만(Weimer et al., 2017), 가장 눈에 띄는 발달은 4-5세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Atance et al., 2010; Gopnik & Slaughter, 1991; Moore et al., 1995; Wellman & Liu, 2004) 이 시기의 유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급의 역동이 유아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기관의 4세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인지적 차원의 내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양육 행동의 역할과 유아 개인의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을 고찰한다. 먼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연구 경향을 검토하며,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유아의 발달의 관계를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개념 및 발달

갈등은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에서 개인 간 목표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이정애, 2016).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들 역시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접하게 된다(박향아 외, 2016). 이때 유아들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갈등해결능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됨(Ashby & Neilsen-Hewett, 2012)과 동시에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의 핵심 특징이 된다(Joshi, 2008). 더불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성인기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선행연구는 갈등해결능력을 갈등 상황 속에서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Kerr & Nelson, 2006).

이 연구의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또래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다. 선행연구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Garcia et al., 2000; Ross

& Lazinski, 2014; Stocker et al., 2002), 유아와 어머니의 갈등(김현주, 2019; Laible & Thompson, 2002; Nelson et al., 2017), 유아와 교사의 갈등(권연희, 2012; 오경희, 신유림, 2010)을 살펴보았으며, 유아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아는 수평적 관계 지위를 이루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는 점에서(권연희, 2012),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같은 학급에서 생활 중인 또래 맥락을 살펴본다.

또한 유아기에는 대인 문제를 관계적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특히 갈등이 주된 대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갈등해결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pivack와 Shure(1974)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사고과정을 대인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하였다. 한편 Krasnor와 Rubin(1983)은 대인문제해결능력을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했을 때, 대인문제해결능력은 갈등 상황 속에서 타인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능력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와 관계를 맺고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유아기는 유아가 속한 사회집단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지성애, 김지은, 2016). 구체적으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추론 능력의 발달과 함께, 안정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Hazen & Black, 1989). 이때 갈등해결능력은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는 조망 능력을 필요로 한다(Dixon & Moore, 1990; Piaget, 1932). Piaget(1932)는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태도와 행동의 객관적 차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탈중심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선행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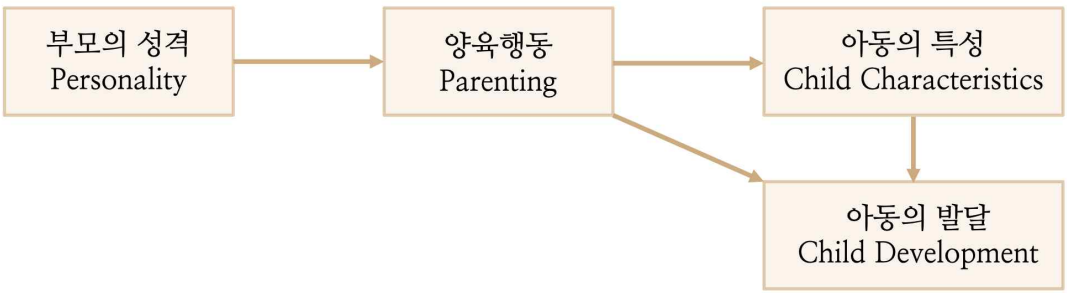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들이 자신의 관점을 언어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갈등을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숙, 박지영, 2012). 연령에 따른 갈등해결능력의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세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주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희연, 2016). 구체적으로, 울기 및 소리 지르기, 신체적 공격으로 대갚음하기, 도움 요청하기, 회피하기 등의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임수정, 이대균, 2015).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행동은 나타나지만, 타인과의 협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Ashby & Neilsen-Hewett, 2012).

3세 정도가 되면 유아는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를 많이 하고, 또래와 폭넓은 의사소통을 경험하며(Hughes, 2010),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인 해결 전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성애, 박성연, 2006). 4세 유아의 경우, 인지적인 성장이 극대화되고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함으로써(Waters & Sroufe, 1983),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거나 획득하게 된다. Eisenberg와 Garvey(1981)는 2.5~5.5세 유아들이 갈등 상황에서 단순한 부정, 반대, 이유 제시, 대안 제시, 동의 유보 및 회피의 5가지 언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5세 유아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타협하는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고영자, 조안나, 2017). 5세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불공평한 절차에 대해 대안적인 전략을 제시할 줄 알며(Grocke et al., 2015), 또래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Grueneisen & Tomasello, 2017). 3세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5세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협상하기와 같은 공동적이고 상호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더 많이 보였다(김세리, 이강이, 2013).

2)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관련 요인

이 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살펴봄에 있어 Belsky(1984)의 이론을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Belsky(1984)는 양육과정모델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누적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양육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가 각기 다른 양육 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개인적 발달사(ontogenic origins) 및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resources)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 아동의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child), 그리고 스트레스 및 지지 자원과 같은 환경적 특성(contextual sources of stress and support)을 들 수 있다.

Belsky(1984)의 이론에서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 중 인지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지만, 최근에는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Huang et al., 2022), 이 연구는 이 부분을 반영하여 적용시키고자 한다. [그림 Ⅱ-1]은 Belsky(1984)가 제시한 모델 그림을 재구성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특성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Belsky(1984)는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개인적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최적의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림 Ⅱ-1]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

2.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Flavell, 1999).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 상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다(Premack & Woodruff, 1978). 마음이론은 바람, 믿음, 의도,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에 근거하여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 사고체계로 정의되고 있다(Davis-Unger & Carlson, 2008; Wellman, 1990).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유아기에 성취하여야 할 중요한 발달과제이다(Wellman, 1992). 마음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유아가 또래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Hughes & Leekam, 2004; Slaughter et al., 2002; Slaughter et al., 2015; Watson et al., 1999). 다양한 연구들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이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성미영, 2006; 오선영, 2013; Denham et al., 1990). 구체적으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주수경, 정지인, 2020; Ensor & Hughes, 2005; Güven et al., 2019). 또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et al., 1998).

마음이론의 발달은 유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이시자, 2003).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적 관계임이 밝혀졌다(Baird & Astington, 2004; Sokol et al., 2004). 구체적으로, 유아가 사회적 지식이 풍부할수록 문제 상황에서 '빼앗기, 때리기' 등의 강제적 문제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였다(성미

영, 2007). 또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andell & Peterson, 2009),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발달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김낙홍 외, 2019; 조성웅, 김낙홍, 2020). 더불어, 3세 때 마음이론의 발달이 6세 때 또래와의 갈등해결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을 묻는 행동을 예측하였다(Dunn & Herrera, 1997).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마음을 추론해야 하므로(Eisenberg et al., 2005)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은 갈등해결능력의 필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서 어머니 변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마음이론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3.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1) 인지적 유연성의 개념

인지적 유연성이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자발성, 인지적 유연함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김상근, 이정윤, 2019; Dennis & Vander Wal, 2010; Martin & Rubin, 1994).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 경우, 개인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홍숙지, 2005).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갖기도 한다(Bandura, 1977). 이는 곧 인지적 유연성이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음으로써 긍정적인 정서까지 유발하는 심리적인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지적 유연성은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며(박정미, 탁진국, 2021; 정은선, 하정희, 2019; Leary, 1957),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조은영, 임정하, 2014).

Ionescu(2012)는 인지적 유연성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개인적인 특성의 측면으로, 외부환경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통제 기능이다. 이는 변화된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는 환경을 지각하는 인지적 방식의 측면으로, 환경 변화의 맥락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념화한 심리적인 틀에 변화를 줌으로써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의 두 개념은 독립된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새로운 과제 수행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정승희, 2018). 종합했을 때,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인지적인 변화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발달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몇몇의 국내외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을 촉진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홍예지, 2022).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urran & Andersen, 2017). 사회적 유능감과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이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와 서로

밀접하다는 점에서(Steinberg, 2005)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갈등해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지적 유연성이 갈등 상황 중 타협과 같이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건설적인 개인의 내적 기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et al., 1998).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관리를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적인 능력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여미정, 김완일, 2020; 이은화 외, 2021; 임정하 외, 2016).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지적 유연성과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개념

유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유아는 행복,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반대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유아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며, 낯선 환경이나 자신에게 불안정감을 제공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는 공포,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서 부모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그 사회에서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신념, 동기, 가치, 그리고 행동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Eisenberg 외(1998)는 이러한 과정을 '정서 사회화 과정'이라고 제시하며, 유아는 정서 자체의 의미, 원인과 결과, 그리고 표현 및 조절 등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와 관련된 학습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중에서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표현과 조절에 관한 어머니의 기대를 반영하는 보다 직접적인 정서 사회화 행동으로(Shewark & Blandon, 2015), 현재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를 유아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유아의 정서와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이후 가정 혹은 기관의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Eisenberg et al., 1993).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되는 경험 혹은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Fabes 외(1990)는 유아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감정표현의 격려(expressive encouragement)는 유아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이다. 두 번째, 정서중심적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s)은 유아가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의 기분이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다. 세 번째, 문제

중심적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s)은 유아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유아가 스스로 대처해 나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다. 네 번째, 처벌적 반응(punitive reactions)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중단시키거나 제재하기 위해 언어 혹은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최소화 반응(minimization)은 유아가 느끼는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 반응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반응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어머니도 경험하게 되는 짜증이나 불안 등을 자녀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isenberg 외(1998)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보고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측정할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기 보고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Hurrell et al, 2015).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가 평소 유아기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보이는 반응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자 한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사회인지적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공윤정, 2020).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발달이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직접적으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처벌적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가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였다(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처벌적 반응과 최소화 반응은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Barber & Harmon, 2002; Denham & Grout, 1992).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심리적 고통 반응을 보일 경우, 정서중심적 반응을 함께 보여준다 해도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정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윤경미, 한세영, 2017).

이상의 고찰을 종합한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반응의 하위 요인을 나누어 살펴본 경우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결과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예측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정서적 상태와 인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Abidin, 1992).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와 인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작용과 모두 관련되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Lemerise & Arsenio, 2000)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행동 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한 부모들은 자녀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 애정적인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고, 자녀의 정서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Barber, 1996). 반대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 경우, 어머니의 분노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미, 탁진국, 2021; 정은선, 하정희, 2019). 이를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때,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우울, 사회적 고립감, 교육수준과 같은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전미순, 이영애, 2009; 정명자 외, 2011).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와 인지 과정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Isen, 2008) 우울 및 사회적 고립감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예측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대해 각각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각 반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련성이 밝혀졌다(Curran, 2018).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Curran & Andersen, 2017).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마음이론은 언어능력과 연령을 통제하고도 관련성이 나타났으며(Bock et al., 2015),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은 1년 후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Farrant et al., 201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가 표현하는 정서와 언어를 관찰하고, 어머니의 행동과 표정을 모방하면서 정서적 규칙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이지영 외, 2019; Dunsmore & Halberstadt, 1997). 이때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적인 양육은 이후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이 밝혀졌다(Ruffman et al., 2006). 구체적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주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다(Eisenberg, 2006). 그리고 부모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이해하며 공감을 표현하는 등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수준이 높고, 부모가 감정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등 낮은 수용을 보일수록 마음이론 수준이 낮았다(김민지, 김선희, 2018).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이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바(Mazzone & Nader-Grosbois, 2016),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른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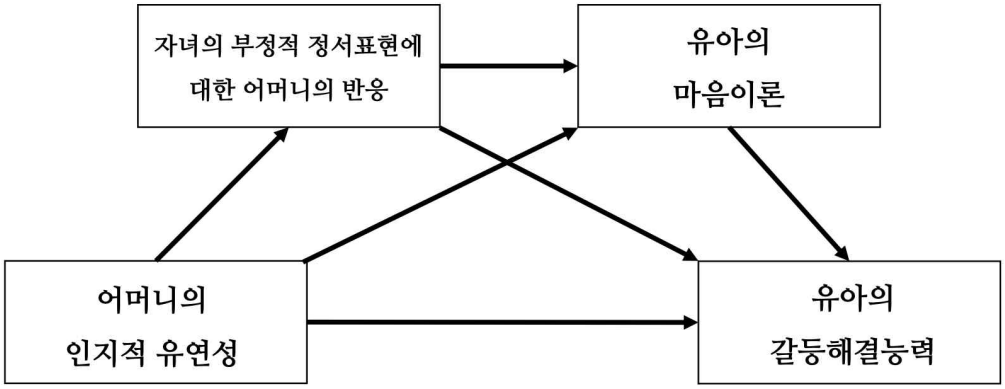
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는 부모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인지적 구인이 적응적 양육 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각각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진숙, 한지현, 2004). 이는 양육 맥락에서 어머니가 가지는 인지적 구인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한편,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이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육 맥락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휘될 수 있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양육 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마음이론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간접 경로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Beauchamp와 Anderson(2010)은 부모의 양육이 유아의 마음이론, 공감 등을 매개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인지통합능력 모델(The socio-cognitive integration of abilities model)을 제안하였다. 사회-인지통합능력 모델에 의하면 사회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사회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능력)이 출현하게 된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능력) 중에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평가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했을 때,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어머니 변인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간접 경로를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Ⅱ-2] 가설 모형

Ⅲ. 연구문제와 용어 정의

이 장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주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이 매개하는지 확인한다. 그중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에 따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갈등해결능력은 갈등 상황 속에서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의미한다(Kerr & Nelson, 2006). 이 연구에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또래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유아가 보이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한다.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상대와 타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 및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 설명과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조은영, 임정하, 2014; Dennis & Vander Wal, 2010).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고 대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것과,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가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와 정서조절에 관한 어머니의 기대를 반영하는 직접적인 정서 사회화 행동이다(Shewark & Blandon, 2015).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표현의 격려'는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를 인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수록 격려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정서중심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가 좋아지도록 위로하는 반응을 의미하며, '문제중심적 반응'은 유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반응을 말한다. 한편, '처벌적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꾸짖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화 반응'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의 문제 또는 부정적 정서표현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4) 유아의 마음이론

마음이론은 마음 상태가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Flavell, 1999; Sung & Hsu, 2014; Wellman, 1990). 구체적으로 마음 상태의 구성요소에는 믿음, 지식, 바람, 의도, 정서가 포함된다(Tahiroglu et al., 2014).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가 일상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을 근거로 하며, 마음이론이 높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믿음, 지식, 바람, 의도, 정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Ⅳ.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 대상의 선정과 연구 도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세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어머니 191쌍이다. 2022년 2월부터 5월에 거쳐 어린이집 9곳과 유치원 6곳, 총 15곳의 유아교육기관과 온라인 육아카페 게시판 4곳에서 어머니-유아 209쌍의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을 모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2202/002-009).

이 연구에서 유아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유아가 성인의 말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아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대면 조사로 진행하는 갈등해결능력 검사 전에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생활연령에 따른 문장이해력 점수가 -2 표준편차 밖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명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대면 조사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유아 4명, 어머니가 ‘심한 우울’에 해당하는 12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18쌍의 자료를 제외하여,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총 191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1)]

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이때 유아의 성별은 남아를 1, 여아를 0으로 코딩하였다. 먼저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 월령은 57.3개월(*SD* = 3.7)이었다. 유아 성별의 경우, 남아가 105명(55.0%), 여아가 86명(45.0%)으로 남아의 비중이 더 높았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외동 및 첫째가 108명(5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둘째가 71명(37.2%), 셋째가 12명(6.3%)으로 뒤를 이었다. 형제자매 수는 1명이 112명(58.6%), 외동이 56명(29.3%), 2명이 23명(12.0%)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가 94명(49.2%),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97명(50.8%)으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비중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의 평균은 37.2세(*SD* = 3.8)이었다. 어머니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08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35명(18.3%), 대학원 재학 이상이 31명(16.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명(8.9%) 순으로 많았다. 아버지 연령은 평균 39.4세(*SD* = 4.2)이었다. 아버지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97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재학 이상이 40명(20.9%),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35명(18.3%),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명(9.4%), 미응답이 1명(0.5%)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근로형태는 상용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버지가 상용직인 경우가 185명(96.9%),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가 92명(48.2%)이었다. 가계소득은 400-600만 원대가 57명(29.8%)으로 이 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600-800만 원대가 51명(26.7%), 800만 원 이상이 42명(22.0%), 200-400만 원대가 39명(20.4%), 200만 원 미만이 2명(1.0%) 순으로 많았다.

---

1) G*Power3.1.9.6(Faul et al., 2009) 분석 결과, 독립변수 1개, 매개변수 2개, 통제변수 3개가 투입되는 연구문제 2를 기준으로 효과 크기 .15, 유의 확률 .05, 검정력 .95일 때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최소 146개였다.

<표 Ⅳ-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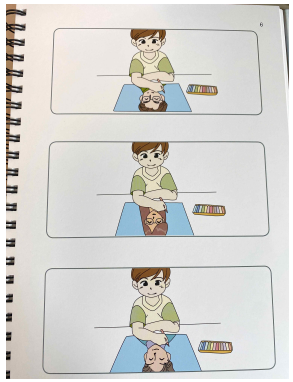
N = 191

		n(%)
유아 월령	월령 평균	57.3
	월령 범위	50-63
유아 성별	남아	105 (55.0)
	여아	86 (45.0)
유아 출생순위	외동 및 첫째	108 (56.5)
	둘째	71 (37.2)
	셋째	12 (6.3)
유아 형제자매 수	외동	56 (29.3)
	1명	112 (58.6)
	2명	23 (12.0)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	94 (49.2)
	유치원	97 (50.8)
어머니 연령	연령 평균	37.24
	연령 범위	23-47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7 (8.9)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5 (18.3)
	4년제 대학교 졸업	108 (56.5)
	대학원 재학 이상	31 (16.2)
어머니 근로형태	상용직	92 (48.2)
	임시직	24 (12.6)
	일용직	8 (4.2)
	무직	67 (35.1)
아버지 연령	연령 평균	39.44
	연령 범위	27-51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8 (9.4)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5 (18.3)
	4년제 대학교 졸업	97 (50.8)
	대학원 재학 이상	40 (20.9)
	미응답	1 (.5)
아버지 근로형태	상용직	185 (96.9)
	임시직	2 (1.0)
	일용직	2 (1.0)
	무직	1 (.5)
	미응답	1 (.5)
월 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2 (1.0)
	200-400만 원대	39 (20.4)
	400-600만 원대	57 (29.8)
	600-800만 원대	51 (26.7)
	800만 원 이상	42 (22.0)

2. 연구 도구

각 연구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 도구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와 어머니에게 제공한 연구 도구의 개요는 <표 Ⅳ-2>와 같다. 유아와의 대면 조사에서는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와 갈등해결능력 검사(<부록 2>, <부록 3> 참조)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모두 4세 학급 유아에게 적합한 연구 도구로 선정하였다.

<표 Ⅳ-2> 조사대상에 따른 연구 도구 개요

조사대상	연구 도구	참여 방식	도구 예시
유아의 어머니	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②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③ 어머니의 우울(CES-D) ④ 유아의 마음이론	설문지 작성 후 제출	<부록 1> 참조
유아	① 구문의미이해력 검사(KOSECT)	검사 도구(책)를 보며 응답하기	
	② 갈등해결능력 검사	검사 도구(그림)를 보며 응답하기	<부록 2> 참조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 갈등해결능력 검사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이혜정과 김미경(2012)이 개발한 '유아의 갈등인식 및 해결'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가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래와의 갈등 장면을 다루고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되어 있다(<부록 2> 참조).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검사는 13장면에 대해 그림 자료와 함께 검사자가 설명한 후 유아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2] 이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유아반 담임교사 3명의 자문을 통해 3가지 장면을 수정하였다. 먼저, 그림 자료 4에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데 친구가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상황'은 '손을 씻기 위해 기다리는 데 친구가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상황'으로, 그림 자료 12에서 '친구가 밥을 늦게 먹는다고 놀리는 상황'은 '친구가 나의 그림 작품을 놀리는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규칙 위반의 상황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림 자료 8에서 '대청소를 하기로 정한 날 아빠는 청소를 하지 않고 엄마만 청소를 하는 상황'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친구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하였는데, 친구가 출발선을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

2) 유아에게 제공하는 그림 자료를 동성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갈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컸다는 점(Clark & Ladd, 2000)과 성별에 따라서 유아의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김희진, 이지현, 2001; Noakes & Rinaldi, 2006)에서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였다.

(2) 갈등해결능력 검사의 평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측정은 이혜정과 김미경(2012)이 개발한 '유아의 갈등인식 및 해결' 도구의 측정 기준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사자가 설명한 장면에 대한 "00이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며,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답변은 '신체적 폭력'의 1점부터 '타협, 중재하기'의 9점까지로 평정하였다. 채점 기준은 <표 Ⅳ-3>과 같다. 13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갈등해결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과 또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한 합일점을 찾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평정에 대한 신뢰도는 연구 대상의 25%인 48명이 응답한 13장면의 답변에 대해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3인, 총 4인의 평정자 간 일치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급내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98로, 평정자 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평정자 간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응답을 분류하였다.

<표 Ⅳ-3>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채점 범주별 점수 기준

채점범주	문항내용	점수
신체폭력	손이나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 <답변 예시> "콩 해줄 거야", "때릴 거야", "(공 던지기) 똑같이 해줄 거야"	1점
언어폭력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 <답변 예시> "너랑 안 놀아", "112에 전화할거야 도둑!"	2점
부정적 회피	자신의 의견을 더 이상 피력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활동을 포기하는 행동 <답변 예시> "그냥 집으로 가요", "그림을 가방에 넣어요", "눈물이 나요"	3점

교사에게 이야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 외 제3자를 개입하는 행동 <답변 예시> “선생님/엄마/아빠/이모/삼촌/할머니/할아버지/다른 친구 등에게 말해요”	4점
요청하기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의견에 맞추도록 하는 행동 <답변 예시> “비켜줘”, “하지마”	5점
긍정적 회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이하는 행동 <답변 예시> “색종이 접기 책을 보고 혼자 해봐요”, “다른 친구랑 놀이해요”	6점
규칙 이야기	보편적 도덕성 및 그에 따른 규칙을 설명함으로써 상대를 설득하는 행동 <답변 예시> “친구야 4칸만 가야 해”, “여기가 출발하는 곳이야, 이 선으로 와”	7점
선택을 제안하기	갈등 외에 다른 선택권을 상대에게 제시하는 행동 (상호적이지만 자신의 욕구가 상대의 요구보다 우선됨) <답변 예시> “(둘 다 아빠하고 싶어 하는 상황) 나는 아빠하고 너는 엄마하면 어때?”,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가 하는 거 어때?”	8점
타협, 중재하기	자신과 친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한 합일점을 찾기 위한 행동 (상호적이며,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새로운 제안을 제시함) <답변 예시> “둘 다 엄마/아빠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9점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nnis와 Vander Wal(2010)가 개발하고 허심양(2011)이 번안한 인지적 유연성 척도(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부록 1의 Ⅰ> 참조). 이 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안 요인(예: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과 통제 요인(예: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생각할 수가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의 점수는 하위 요인을 합산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20문항에 대한 Cronbach의 alpha값은 .90이었다(<표 Ⅳ-4> 참조).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Fabes 외(1990)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s (CCNES)를 수정·번안한 김희정(1995)의 도구를 Suh와 Kang(2020)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부록 1의 Ⅲ> 참조). 이 척도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유아기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12가지의 일상적인 상황과 자녀가 표현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6가지 하위 요인은 감정표현의 격려(expressive encouragement), 정서중심적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s), 문제중심적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s), 처벌적 반응(punitive reactions),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으로 구성된다.

총 7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정표현의 격려 12문항(예: “아이가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아이를 격려해 준다.”), 정서중심적 반응 12문항(예: “아이를 위로해 주고 파티(또는 또래모임)에 못 가서 나빠진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문제중심적 반응 12문항(예: “다음에는 어떻게 자전거를 정지시켜야 하는지 알려준다”), 처벌적 반응 12문항(예: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보내 화를 가라앉게 한다.”), 최소화 반응 12문항(예: “아이에게 파티(또는 또래모임)에 빠진 것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심리적 고통 반응 12문항(예: “아이가 부주의한 것에 대해 흥분해서 소리친다.”)으로 구성된다.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 상황에 대한 6가지의 반응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Fabes 외(1990)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6가지를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지지적 반응에 해당하는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을 역채점하여 변인 간의 방향성을 맞추고,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3]. 이 연구와 동일한 CCNES를 이용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을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여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선진, 강민주, 2020; 한세영 외, 2019). 연구문제 2에서는 하위 요인을 모두 합산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1에서는 하위 요인 별 평균 점수로 각각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72문항에 대한 Cronbach의 alpha값은 .85이었다(<표 Ⅳ-4> 참조).

3)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각각의 반응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유아의 마음이론

이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이 낮게 측정되는 이유로 과제 설계를 지적하는 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Onishi & Baillargeon, 2005),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용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Tahiroglu 외(2014)가 3-6세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사회적 이해 척도(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Scale; CSUS)를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확인한 윤선영과 신나나(20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1의 Ⅱ> 참조). 이 척도는 유아가 일상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을 근거로 유아의 믿음(belief), 지식(knowledge), 바람(desire), 의도(intention), 정서(emotion), 지각(perception)에 대한 이해를 어머니의 응답을 통해 파악한다. 이때, 유아의 지각에 대한 이해는 언어발달과의 관련성이 주로 논의되어왔다(Plunkett & Marchman, 1991; Tsao et al., 2004). 그리고 유아의 믿음, 지식, 바람, 의도, 정서에 대한 이해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김낙홍 외, 2019; 조성웅, 김낙홍, 2020) 이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을 믿음, 지식, 바람, 의도, 정서에 대한 이해의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믿음 7문항(예: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지식 7문항(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람 7문항(예: "원하는 것과 실제로 갖게 된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도 7문항(예: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것보다 나쁘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서 7문항(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으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음이론 점수는 하위 요인을 모두 합산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마음이론 35문항에 대한 Cronbach의 alpha값은 .91이었다(<표 Ⅳ-4> 참조).

5)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도구는 유아가 검사자의 장면 설명을 이해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장의미이해 능력의 지연이 있는 유아를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구문구조의 발달이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김지은, 지성애, 2016; Astington, 2000)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배소영 외(2004)가 개발한 구문의미이해력 검사(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KOSECT)를 선정하였다. 이는 총 57문항으로 유아가 정반응을 보인 항목수를 모두 더하면 유아의 원점수가 된다. 검사 도구는 문법형태소 이해(10문항), 구문구조 이해(28문항), 의미이해(19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유아에게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목표 문장을 들려준 다음, 3개의 그림들 중 들은 내용과 유사한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각 항목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 처리하며, 연속하여 3문항에서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 검사는 종료된다. 총점은 최고 57점, 최저 0점이다.

6) 어머니의 우울

이 연구는 어머니가 심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처벌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전미순, 이영애, 2009)를 토대로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표준 지침에 따라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라는 우울척도를 활용하였다(<부록 1의 Ⅳ> 참조). 이 도구는 총 20문항(예: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평정척도로, 어머니는 척도의 문항 내용을 읽고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정도를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부터 ‘대부분(5-7일)’ 3점까지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합계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심한 우울’에 해당한다. 어머니의 우울 20문항에 대한 Cronbach의 alpha값은 .84이었다(<표 Ⅳ-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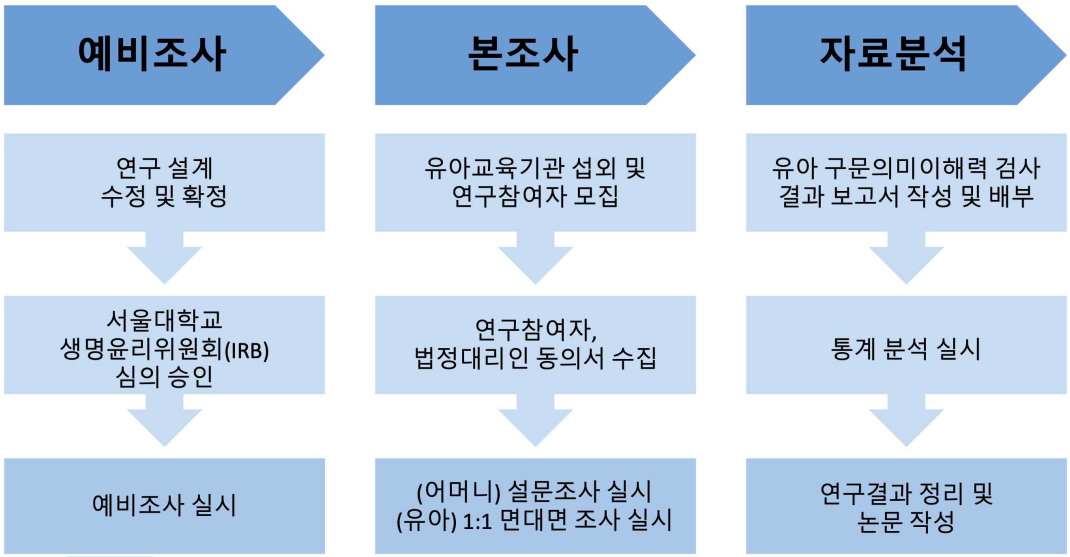
<표 Ⅳ-4>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번호, 문항 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86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20	.90
대안	3, 5, 6, 8, 10, 12, 13, 14, 16, 18, 19, 20	12	.89
통제	1, 2*, 4*, 7*, 9*, 11*, 15, 17*	8	.86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72	.85
감정표현의 격려	1E, 2E, 3E, 4B, 5F, 6E, 7F, 8A, 9A, 10C, 11F, 12B	12	.80
정서중심적 반응	1F, 2B, 3D, 4E, 5A, 6A, 7B, 8F, 9F, 10D, 11E, 12C	12	.83
문제중심적 반응	1C, 2D, 3C, 4F, 5B, 6F, 7A, 8B, 9D, 10E, 11D, 12A	12	.81
처벌적 반응	1A, 2F, 3F, 4A, 5D, 6D, 7E, 8E, 9E, 10B, 11C, 12E	12	.81
최소화 반응	1D, 2C, 3B, 4C, 5C, 6B, 7D, 8D, 9C, 10F, 11A, 12F	12	.81
심리적 고통 반응	1B, 2A*, 3A, 4D, 5E, 6C, 7C*, 8C*, 9B, 10A*, 11B, 12D	12	.75
유아의 마음이론		35	.91
믿음(belief)	1, 2, 3, 4, 5, 6, 7	7	.76
지식(knowledge)	8, 9, 10, 11, 12, 13, 14	7	.69
바람(desire)	22, 23, 24, 25, 26, 27, 28	7	.77
의도(intention)	29, 30*, 31, 32, 33, 34, 35	7	.79
정서(emotion)	36, 37, 38, 39*, 40, 41, 42	7	.65
어머니의 우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84

*은 역채점 문항

3. 연구 절차

이 연구는 [그림 Ⅳ-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예비조사, 본 조사, 자료 분석의 순서로 수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예비조사, 본 조사, 자료 분석의 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림 Ⅳ-1] 연구 수행 순서

1) 예비조사

이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는 유아교육기관 담임교사와 유아, 그리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3일 동안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구를 코로나19 상황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수정한 장면의 내용 타당

도에 대해서는 유아반 담임교사 3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현실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연구 설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 교실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존재하고, 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린다'의 척도 문항을 '손을 씻기 위해 차례를 기다린다'로 수정하였으며, '친구가 밥을 늦게 먹는다고 놀리는 상황'의 척도 문항을 '친구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놀리는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더하여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척도 문항을 또래놀이상황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과 집에서 대청소를 하기로 정한 날'을 '출발선을 지키는 게임 놀이'로 수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 3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구의 문항 이해 및 실시 과정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은 2022년 1월 2일부터 3일 동안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두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설문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 혹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항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함과 동시에 응답 소요시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구성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어머니용 설문지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예비조사는 2022년 2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심의를 받은 이후 진행되었다(IRB No. 2202/002-009). 2022년 2월 17일과 2022년 2월 22일에 어린이집 4세 학급 진학을 앞둔 유아 7명(남아: 4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빈 교실을 활용하여 유아가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자와 1:1로 대화를 진행하였을 때, 구문의미이해능력과 갈등해결능력 과제에 집중하여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는 유아가 검사자가 설명하는 말을 듣고 손가락 등으로 그림을 선택하는 형식의 구문의미이해능력 검사를 먼저 시작하고, 13가지 갈등 장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문("00이는 어떻게 할까요?")에 응답하

는 갈등해결능력 검사 순서로 진행하였다. 세 번째 예비조사 과정에서 연구 도구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구문의 미이해능력 검사와 갈등 상황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데에 각각 5-10분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10-20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번의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과 한 번의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 및 확보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연구 설계 및 연구 도구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연구 설계를 확정한 후 유아교육기관 및 가정을 섭외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 및 연구 참여자는 <표 Ⅳ-1> 및 <표 Ⅳ-2>와 같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온라인 육아카페 게시판에 연락을 취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9곳의 어린이집과 6곳의 유치원, 총 15곳의 유아교육기관과 4곳의 온라인 육아카페 게시판에 연구 협조를 얻었다.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기관을 통해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께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동의서와 설문지를 제출받는 기간을 가졌다. 어머니들의 설문지와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과 일정을 상의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육아카페 게시판을 통해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분리된 공간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용 설문지를, 유아는 연구자와 1:1 면담을 통한 과제를 진행하였다. 조사 당일 유아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기관 4세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와 어머니 209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유아 대면 조사는 2022년 2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기관 및 가정에 방문하기 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였으며, 유아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 및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전염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최대한 거리를 띄우고 나란히 앉아서 실시하였다. 더불어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 대면 조사는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조용한 공간 혹은 가정의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연구자 1:1로 진행되었다. 각 환경별로 조사가 진행된 공간은 유아가 심리적으로 낯선 공간이 아니라는 점과 연구자와 유아가 유아에게 편안한 책상과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대면 조사는 [그림 Ⅳ-2]와 같이 연구자가 유아와 함께 책과 그림을 보며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그림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제시한 후, 유아의 응답을 확인하고 즉시 정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아는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와 갈등해결능력 검사 순으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를 마친 후 유아는 연필을 답례품으로 받았다.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와 갈등해결능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간단한 개별 유아의 보고서가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어머니께 전송되었고, 어머니용 설문지 작성에 대한 답례품으로 모바일 음료 기프티콘이 제공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 어머니용 설문지와 연구자가 유아의 응답을 기록한 기록지를 연결하여 코딩 시트에 코딩하였다.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력검사 결과의 경우 평가 지침서를 바탕으로 등가 연령 및 등가 월령을 산출하였고, 이외의 과제도 기준에 따라 점수를 평정하였다.

[그림 Ⅳ-2] 유아 대면 조사 모습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8.0과 Process macro ver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와 급내상관계수(ICC)를 산출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등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도 함께 산출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이 독립적임을 의미하고, 0과 4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urbin-Watson 값이 2 전후 값을 나타낼 때, 오차항의 독립성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

고 본다. VIF 값은 회귀모형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VIF 값이 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5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해 SPSS에 Preacher와 Hayes(2004)의 Process macro ver4.1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Process는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로 분석 모델링 도구이다. Process는 92가지의 다양한 매개 모형 및 조절 모형을 제공하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6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시 표본을 5,000번 추출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Ⅴ.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 모형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연구문제 1)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먼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평균 점수는 66.71(*SD* = 13.08)로 117점 만점에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능력의 각 장면별 점수를 살펴보면, 9점 만점에서 평균 4.39점에서 6.28점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의 평균 점수는 5.21(*SD* = .68)로 7점 만점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평균 점수는 4.99(*SD* = .49)로 7점 만점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정서중심적 반응의 평균 점수가 5.45(*SD* = .69)로 가장 높았으며, 처벌적 반응의 평균 점수가 2.65(*SD* = .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의 평균 점수 5.45(*SD* = .69)와 문제중심적 반응의 평균 점수 5.41(*SD* = .61)은 처벌적 반응의 평균 점수 2.65(*SD* = .86)와 심리적 고통 반응의 평균 점

수 2.95(*SD* = .68)보다 높았다. 유아의 마음이론의 평균 점수는 3.19(*SD* = .33)로 4점 만점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 범위는 -1.15~.09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 범위는 -.87~2.28의 값으로 나타나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8 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표 Ⅴ-2> 참조).

<표 Ⅴ-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91

	범위	최소값	최대값	*M*(*SD*)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1-7	2.69	6.92	5.21 (.68)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1-7	3.31	6.58	4.99 (.49)
유아의 마음이론	1-4	2	3.97	3.19 (.33)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3-117	16	98	66.71 (13.08)
어머니의 우울	0-60	0	24	10.21 (6.16)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0-57	3	55	19.16 (9.92)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r = .21, p < .0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r = .14, p < .05), 유아의 마음이론(r = .28, p < .001)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차원에서는 감정표현의 격려(r = .15, p < .05), 정서중심적 반응(r = .27, p < .001), 문제중심적 반응(r = .16, p < .05)과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지지적일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r = .44, p < .001) 및 유아의 마음이론(r = .44, p < .001)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차원에서는 감정표현의 격려(r = .29, p < .001), 정서중심적 반응(r = .38, p < .001), 문제중심적 반응(r = .41, p < .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처벌적 반응(r = -.25, p < .001) 및 심리적 고통반응과(r = -.43, p < .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최소화 반응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지지적이며,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하고, 처벌적 반응과 심리적 고통 반응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r = .35, p < .001). 구체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어머니가 감정표현의 격려를 많이 하고(r = .17, p < .05), 정서중심적 반응(r =

.32, $p < .001$)과 문제중심적 반응($r = .41$, $p < .001$)을 많이 보일 때, 그리고 처벌적인 반응($r = -.22$, $p < .01$)과 심리적 고통 반응($r = -.24$, $p < .001$)을 적게 보일 때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최소화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 = 191

	1	2	2-1	2-2	2-3	2-4	2-5	2-6	3	4
1	1									
2	.44***	1								
2-1	.29***	.54***	1							
2-2	.38***	.69***	.47***	1						
2-3	.41***	.72***	.50***	.76***	1					
2-4	-.25***	-.81***	-.13	-.37***	-.37***	1				
2-5	-.08	-.49**	.05	.11	-.01	.56***	1			
2-6	-.43***	-.78***	-.18*	-.45***	-.40***	.76***	.34***	1		
3	.44***	.35***	.17*	.32***	.41***	-.22**	-.08	-.24***	1	
4	.21**	.14*	.15*	.27***	.16*	-.01	.05	-.08	.28***	1
M	5.21	4.99	4.55	5.45	5.41	2.65	3.85	2.95	3.19	66.71
SD	.68	.49	.75	.69	.61	.80	.86	.68	.33	13.08
왜도	-.28	.09	-.19	-.04	.01	-.09	-.52	-.12	-.11	-1.15
첨도	1.24	-.33	.52	-.54	-.44	-.87	-.05	-.74	.40	2.28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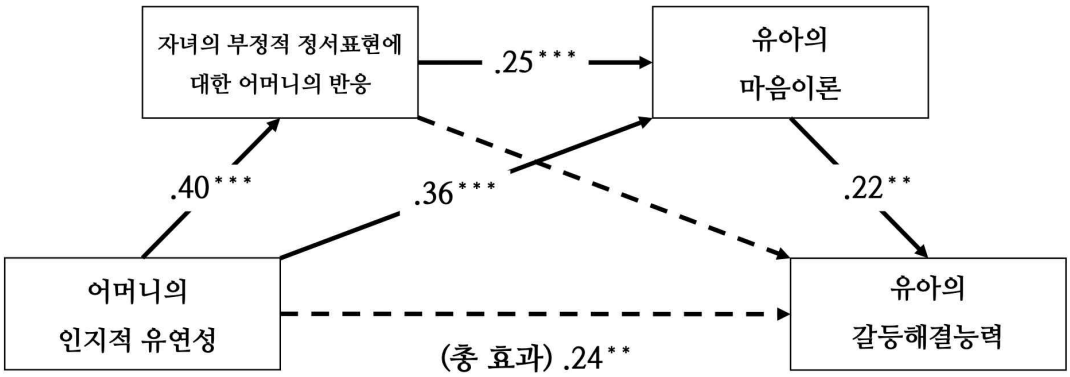
주)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평균(2-1. 감정표현의 격려, 2-2. 정서중심적 반응, 2-3. 문제중심적 반응, 2-4. 처벌적 반응, 2-5. 최소화 반응, 2-6. 심리적 고통 반응), 3. 유아의 마음이론, 4.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연구문제 2)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중매개 모형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Preacher와 Hayes(2004)의 Process 매크로에서 이중매개 모형을 표현하는 모델 6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Process 모형 6의 독립변수 자리에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을, 첫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두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 유아의 마음이론을, 종속변수 자리에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통제변수 자리에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능력, 어머니의 우울을 투입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이 모형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24%를, 유아의 마음이론의 29%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β = .40, p < .001).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6, p < .001). 반면에,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5, p < .001). 한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2, p < .0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24, 3.04]이었으며,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5, .90]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두 가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통제변수: 유아 성별, 구문의미이해력, 어머니의 우울

$^{**}p < .01$. $^{***}p < .001$.

[그림 Ⅴ-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표 Ⅴ-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N = 1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어머니 반응	성별	-.03	-.03	-.51	14.65***	.24 (.22)
	구문의미이해	.00	-.09	-1.39		
	우울	-.02	-.19	-2.84**		
	인지적 유연성	.29	.40	5.98***		
마음이론	성별	.01	.02	.30	15.20***	.29 (.27)
	구문의미이해	.01	.23	3.76***		
	우울	.01	.14	2.14*		
	인지적 유연성	.17	.36	5.08***		
	어머니 반응	.17	.25	3.46***		
갈등해결능력	성별	-4.58	-.17	-2.52*	4.62***	.12 (.09)
	구문의미이해	.04	.03	.43		
	우울	.11	.05	.67		
	인지적 유연성	2.44	.13	1.50		
	어머니 반응	.79	.03	.36		
	마음이론	8.64	.22	2.63**		

*p < .05. **p < .01. ***p < .001.

주) 성별: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우울: 어머니의 우울,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표 Ⅴ-4>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N =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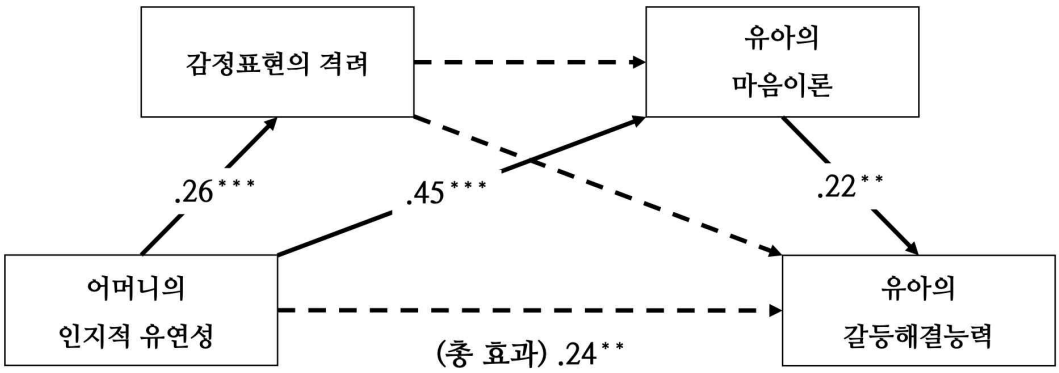
경로	*B*	*Boot S.E.*	95% CI *LLCI*	95% 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23	.72	-1.11	1.75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49	.73	.24	3.0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41	.22	.05	.90
총 간접효과	2.13	.88	.51	3.95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함께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최소화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최소화 반응을 제외한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에 따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살펴본다.

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감정표현의 격려로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이 모형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의 12%를, 유아의 마음이론의 25%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2]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 p < .001).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쳤다(β = .45, p < .00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가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2, p < .01).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44, 3.59]로,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감정표현의 격려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통제변수: 유아 성별, 구문의미이해력, 어머니의 우울

$^{**}p < .01$. $^{***}p < .001$.

[그림 Ⅴ-2]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표 Ⅴ-5>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N = 1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감정표현격려	성별	-.17	-.11	-1.61	6.44***	.12 (.10)
	구문의미이해	.01	.10	1.40		
	우울	-.02	-.13	-1.75		
	인지적 유연성	.29	.26	3.69***		
마음이론	성별	.01	.02	.23	12.12***	.25 (.23)
	구문의미이해	.01	.21	3.25**		
	우울	.01	.10	1.49		
	인지적 유연성	.22	.45	6.46***		
	감정표현격려	.02	.04	.62		
갈등해결능력	성별	-4.40	-.17	-2.41*	4.36***	.12 (.10)
	구문의미이해	.03	.02	.29		
	우울	.11	.05	.73		
	인지적 유연성	2.26	.12	1.42		
	감정표현격려	1.26	.07	.99		
	마음이론	8.80	.22	2.77**		

*p < .05. **p < .01. ***p < .001.

주) 성별: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우울: 어머니의 우울,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감정표현격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표 Ⅴ-6>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N =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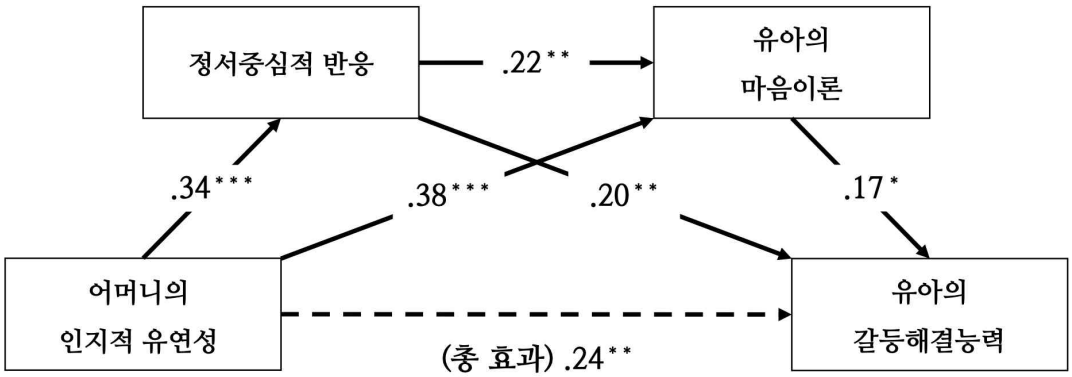
경로	B	*Boot S.E.*	95% CI *LLCI*	95% 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감정표현의 격려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37	.40	-.34	1.26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89	.80	.44	3.59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감정표현의 격려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05	.10	-.18	.24
총 간접효과	2.31	.91	.61	4.16

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정서중심적 반응으로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7>과 같다. 이 모형은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의 17%를, 유아의 마음이론의 29%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3]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β = .34, p < .001).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8, p < .00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2, p < .01). 더불어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0, p < .01). 끝으로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17, p < .05).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34, 2.65]로,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3, 2.83]으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0, .61]로 나타났다. 세 가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세 가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의 매개효과와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통제변수: 유아 성별, 구문의미이해력, 어머니의 우울

*p < .05. **p < .01. ***p < .001.

[그림 Ⅴ-3]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표 Ⅴ-7>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N = 1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정서중심	성별	-.06	-.04	-.60	9.53***	.17 (.15)
	구문의미이해	-.00	-.06	-.85		
	우울	-.02	-.16	-2.25**		
	인지적 유연성	.35	.34	4.89***		
마음이론	성별	.01	.02	.31	14.79***	.29 (.27)
	구문의미이해	.01	.23	3.61***		
	우울	.01	.13	1.96		
	인지적 유연성	.18	.38	5.54***		
	정서중심	.11	.22	3.23**		
갈등해결능력	성별	-4.39	-.17	-2.45*	5.47***	.15 (.12)
	구문의미이해	.06	.05	.68		
	우울	.17	.08	1.10		
	인지적 유연성	1.71	.09	1.09		
	정서중심	3.80	.20	2.61*		
	마음이론	7.00	.18	2.18*		

*p < .05. **p < .01. ***p < .001.

주) 성별: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우울: 어머니의 우울,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정서중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표 Ⅴ-8>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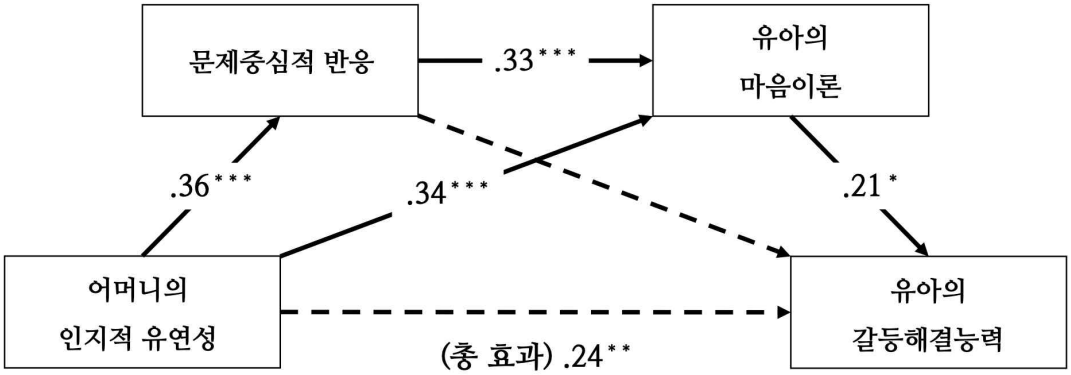
N = 191

경로	B	*Boot S.E.*	95% CI	
			LL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정서중심적 반응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31	.60	.34	2.65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29	.72	.03	2.83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정서중심적 반응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25	.16	.00	.61
총 간접효과	2.85	.92	1.19	4.81

3)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문제중심적 반응으로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9>와 같다. 이 모형은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의 21%를, 유아의 마음이론의 33%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4]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36, p < .001).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쳤다(β = .34, p < .00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3, p < .001).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 끝으로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1, p < .05).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0>과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19, 2.91]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7, .98]로 나타났다. 두 가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두 가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통제변수: 유아 성별, 구문의미이해력, 어머니의 우울

$^{*}p < .05$. $^{**}p < .01$. $^{***}p < .001$.

[그림 Ⅴ-4]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표 Ⅴ-9>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N = 1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문제중심	성별	.01	.00	.06	12.44***	.21 (.19)
	구문의미이해	-.00	-.05	-.80		
	우울	-.02	-.20	-2.97**		
	인지적 유연성	.32	.36	5.30***		
마음이론	성별	.01	.01	.15	18.34***	.33 (.31)
	구문의미이해	.01	.23	3.81***		
	우울	.01	.16	2.51*		
	인지적 유연성	.16	.34	5.02***		
	문제중심	.18	.33	4.88***		
갈등해결능력	성별	-4.61	-.18	-2.53*	4.22***	.12 (.09)
	구문의미이해	.04	.03	.44		
	우울	.11	.05	.71		
	인지적 유연성	2.44	.13	1.54		
	문제중심	.87	.04	.49		
	마음이론	8.38	.21	2.48*		

*p < .05. **p < .01. ***p < .001.

주) 성별: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우울: 어머니의 우울,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문제중심: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표 Ⅴ-10>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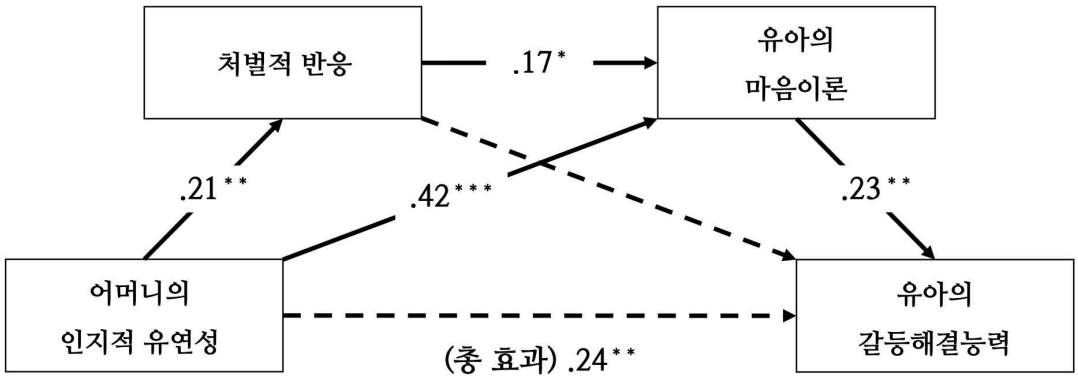
N = 191

경로	B	*Boot S.E.*	95% CI *LLCI*	95% 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문제중심적 반응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28	.52	-.71	1.36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36	.70	.19	2.9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문제중심적 반응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48	.24	.07	.98
총 간접효과	2.12	.83	.66	3.92

4)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처벌적 반응으로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이 모형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의 10%를, 유아의 마음이론의 27%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5]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β = .21, p < .01).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2, p < .00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7, p < .05).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3, p < .01).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45, 3.65]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0, .44]로 나타났다. 두 가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두 가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통제변수: 유아 성별, 구문의미이해력, 어머니의 우울
처벌적 반응을 역채점 하였음

$^{*}p < .05$. $^{**}p < .01$. $^{***}p < .001$.

[그림 Ⅴ-5]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표 Ⅴ-11>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N = 1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처벌	성별	.01	.01	.08	5.05***	.10 (.08)
	구문의미이해	-.01	-.12	-1.78		
	우울	-.02	-.15	-2.06*		
	인지적 유연성	.25	.21	2.92**		
마음이론	성별	.01	.01	.15	13.67***	.27 (.25)
	구문의미이해	.01	.23	3.67***		
	우울	.01	.12	1.80		
	인지적 유연성	.20	.42	6.29***		
	처벌	.07	.17	2.49*		
갈등해결능력	성별	-4.61	-.18	-2.53*	4.29***	.12 (.09)
	구문의미이해	.02	.02	.24		
	우울	.07	.03	.46		
	인지적 유연성	2.74	.14	1.75		
	처벌	-.96	-.06	-.79		
	마음이론	9.39	.24	2.91**		

*p < .05. **p < .01. ***p < .001.

주) 성별: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우울: 어머니의 우울,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처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표 Ⅴ-12>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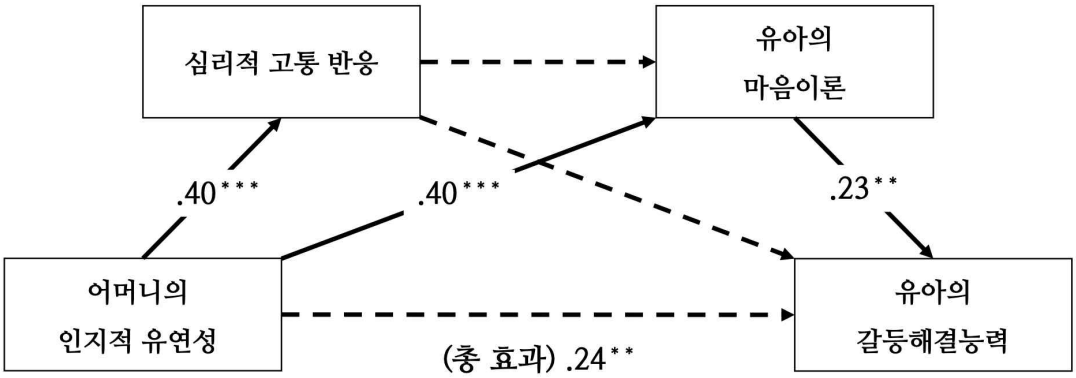
N = 191

경로	B	*Boot S.E.*	95% CI *LLCI*	95% 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처벌적 반응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24	.39	-1.09	.50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91	.81	.45	3.65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처벌적 반응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6	.11	.00	.44
총 간접효과	1.83	.82	.37	3.55

5)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심리적 고통 반응으로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13>과 같다. 이 모형은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의 24%를, 유아의 마음이론의 26%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6]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0, p < .001).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쳤다(β = .40, p < .001).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끝으로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3, p < .01).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4>와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40, 3.39]로,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통제변수: 유아 성별, 구문의미이해력, 어머니의 우울
심리적 고통 반응을 역채점 하였음

$^{**}p < .01$. $^{***}p < .001$.

[그림 Ⅴ-6]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표 Ⅴ-13>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모형

N = 19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심리적 고통	성별	-.05	-.03	-.52	14.90***	.24 (.23)
	구문의미이해	-.01	-.17	-2.58*		
	우울	-.02	-.17	-2.52*		
	인지적 유연성	.40	.40	5.96***		
마음이론	성별	.01	.02	.23	12.89***	.26 (.24)
	구문의미이해	.01	.23	3.63***		
	우울	.01	.12	1.73		
	인지적 유연성	.20	.40	5.61***		
	심리적 고통	.06	.13	1.81		
갈등해결능력	성별	-4.63	-.18	-2.54*	4.19***	.12 (.09)
	구문의미이해	.30	.02	.31		
	우울	.09	.04	.54		
	인지적 유연성	2.74	.14	1.67		
	심리적 고통	-.41	-.02	-.26		
	마음이론	9.05	.23	2.82**		

*p < .05. **p < .01. ***p < .001.

주) 성별: 유아의 성별, 구문의미이해: 유아의 구문의미이해능력, 우울: 어머니의 우울, 인지적 유연성: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심리적 고통: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표 Ⅴ-14>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검증

N = 191

경로	*B*	*Boot S.E.*	95% CI *LLCI*	95% 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심리적 고통 반응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6	.65	-1.41	1.12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1.76	.76	.40	3.39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 심리적 고통 반응 → 유아의 마음이론 →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23	.15	-.01	.59
총 간접효과	1.83	.91	.19	3.78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이때,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과의 관련성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정서중심적 반응과 문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보이고, 처벌적 반응은 적게 보이며, 이가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으로 이어져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심리적 고통 반응을 통해서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Ⅵ. 결론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며 논의한다. 더불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량이다.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이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는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론의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 연구는 유아가 부모로부터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환경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영향력과 그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의 특성과 발달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적 배경(Belsky, 1984)을 바탕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 밝히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4세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와 어머니 191쌍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구문의미이해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어

머니의 우울,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얻은 주요 연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마음이론과 모두 유의했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할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타협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성인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Curran, 2018)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홍예지,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동안 유아의 발달과 함께 논의된 어머니의 개인적 특징은 어머니의 성격(Davodi-Boroujerd et al., 2022), 스트레스(Ward & Lee, 2020), 성인 애착(Cowan et al., 2009)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의 개인적 특성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연관성이 나타나며,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이 높음을 밝혔다. 따라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 또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 연관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간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과 마음이론을 함께 살펴본 연구(김낙홍 외, 2019; 조성웅, 김낙홍, 2020)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초등 아동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경은, 공윤정, 202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갈등해

결능력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행동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관계가 있는 양육 맥락에서 어머니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개입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 중 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마음이론과의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은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및 유아의 마음이론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은 자녀가 표현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의 문제 또는 부정적 반응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적인 특징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구 문화권과 비교하였을 때, 동양 문화권에서 감정 표현의 억제는 때론 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Matsumoto et al., 2008). 실제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과 유아의 사회적 적응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Tao et al., 2010),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Sun et al., 2021).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 간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전미순, 이영애, 2009). 추후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에 대한 국가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을 향상하고, 이는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 연구는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발달하는 기제를 밝혔다. 이는 Belsky(1984)가 주장한 것처럼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 행동은 다시 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때, 개인적 발달사(ontogenic origins)와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resources)과 같은 부모의 사회정서적 측면에 집중한 Belsky(1984)의 이론에서 확장하여,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차원의 개인적 특징이 양육 및 유아의 특징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구체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개인의 사회적 기술과 전반적인 의사소통 유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Curran et al., 2019),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휘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인 분노에 대한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정미, 탁진국, 2021)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한 부모들은 자녀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 애정적인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고, 자녀의 정서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Barber, 1996)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마음이론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김유미, 2021),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이 이후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및 유아의 또래와의 갈등, 협력에 중요함을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Ruffman et al., 2006). 그리고 유아의 마음이론과 대인문제해결 사고 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서현 외,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모든 하위 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은 특정 양육 행동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처벌적 반응을 적게 할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수준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심리적 고통 반응을 통한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재해석 과정과 어머니와 자녀의 적당한 정서적 거리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재해석 과정이 유아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느낀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심리적 고통 반응과는 달리, 자녀에게 위로의 표현을 건네는 정서중심적 반응, 해결책을 제시하여 이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행동을 제안하는 문제중심적 반응,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중단시키거나 제재하기 위해 언어 혹은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행동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재해석이 들어간 반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재해석하여 반응한 것이 유아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느낀 상황을 되돌아보게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이후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Symons & Clark, 2000)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와의 대화 맥락에서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질문이나 말, 혹은 맥락에 대한 정보를 더하는 구체적인 담화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은 돕는다는 연구 결과(Ontai & Thompson, 2008)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느낀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과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의 적절한 정서적 거리 두기가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어머니의 감정표현의 격려와 심리적 고통 반응은 각각 자녀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반응과 어머니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반응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운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 처벌적 반응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가족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족들의 정서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김진이, 2018).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아가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박경미, 우남희, 1997)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 거리 두기와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보인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적절한 정서적 거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유아의 개별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가 스스로의 양육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체적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있다. 첫째,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될 현대사회 속에서 유아가 갈등을 회피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가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관해 다루어 왔으나, 대다수는 유아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거나 양육의 요인 혹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의 두드러지는 점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라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의 관계 속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 밝혔으며,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을 지지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Belsky(1984)의 이론을 적용 및 확장하여,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개인적 특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각하고 적응 및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때, 어머니가 동일한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 행동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구체적인 맥락의 양육 행동과 더불어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

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개입방법 모색이 가능함을 밝혔다.

셋째, 이 연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매뉴얼 및 부모교육 자료는 양육자-자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22), 양육자 개인의 특징을 다루고 있진 않다.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로버 부모교육의 경우, 양육자의 성격유형검사를 제공하여 양육자의 강점 및 가치를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하지만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에서 나아가 어머니가 유연하게 인지의 틀을 전환하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동에 대해 발달평가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어머니 개인에 대해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서의 검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제안한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 발달에 관한 정보와 구체적인 맥락의 양육 방법을 아동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요구된다. 가령,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에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외, 2017).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 증진을 조명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해 볼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부모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인지적 유연성을 돌봐야 하며, 자신의 유연한 사고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자녀에게 닿는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각 하위 요인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상이함을 밝혔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관련된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 연구가 제시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간

의 관계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 요인과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고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육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위로의 반응을 통해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상황의 여러 요인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감정에 대해 꾸짖지 않고 존중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로 이어짐을 강조할 수 있다.

종합할 때,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가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발달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격려하는 지원 체계 마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갈등해결능력 검사는 13가지의 가설적인 상황을 설정한 면접 방식으로, 그림자료와 검사자의 상황 설명을 통한 장면 제시 후, “00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물음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응답과 표현을 통하여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자가 유아 간 갈등 상황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관찰이 어렵지만, 이러한 검사 도구의 특성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보이는 갈등해결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령 실제 갈등 상황에서는 유아 본인은 갈등으로 인식하였지만, 상

대방은 갈등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은 상대방에 따른 변화 등 모든 특성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보고 이외에도 어머니 보고, 교사 보고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유아의 갈등해결 행동을 보다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갈등해결능력 간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마음이론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횡단 연구이므로 네 변인 간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양육 행동, 유아의 마음이론, 갈등해결능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인과성 확립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설계 및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3세반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를 표집 하여 이 유아들이 4세 학급이 되었을 때의 마음이론과 갈등해결능력의 수준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진단함으로써 연령 변화에 따른 유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요인과 유아 개인 요인의 상호작용과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영자, 조안나(2017). 동화를 활용한 평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갈등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1), 23-46.

국립정신건강센터(2020).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김경은, 공윤정(2020).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상담연구, 1**, 1-21.

김낙홍, 박수진, 김성현(2019). 유아의 마음이론, 정서 능력 및 도덕적 판단능력이 갈등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3**(6), 201-228.

김민지, 김선희(2018).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5**(4), 1-22.

김상근, 이정윤(2019).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2**, 1-22.

김세리, 이강이(2013). 유아의 사건표상이 또래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4), 1-22.

김용숙, 박지영(2012). 유아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9), 3934-3942.

김유미(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머감각이 유아의 틀린 믿음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6**(1), 1-9.

김지연, 남은영(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김지은, 지성애(2016). 유아의 마음이론과 언어능력 및 인지처리능력 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319-343.

김진이(2018). 유아의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가족환경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9**, 53-77.

김현주(2019). 어머니-걸음마기 자녀 간 갈등과 걸음마기 자녀의 기질 및 애착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9**(5), 133-159.

김희정(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 이지현(2001). 유아의 연령 및 성구성에 따른 또래간 갈등의 양상. **교육학연구, 39**, 99-119.

노희연(2016). 어린이집 영아가 경험하는 갈등상황과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1**(5), 239-264.

박경미, 우남희(1997). 유아기 아동의 문제해결능력과 정서적 안정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267-282.

박선진, 강민주(2020).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4**(2), 3-27.

박정미, 탁진국(2021). 어머니의 자기조절, 마음챙김, 인지적 유연성, 성장마인드셋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분노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5**(3), 305-337.

박향아, 배구택, 원강희, 조정희, 정근혜(2016). 유아의 또래 간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541-565.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현, 선현아, 박미자(2014). 그림책을 활용한 마음이해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4**(5), 55-84.

성미영(2006).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과 유아의 정서성, 정서지식, 사건지식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5), 59-68.

_____(2007). 가상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만 4세 및 5세 유아의 사회적 지식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27-235.

엄성애, 박성연(2006). 보육시설 영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6), 59-69.

여미정, 김완일(2020).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215-234.

여성가족부(2022).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o?mid=mda777&cd=kps&etc3=M에서 2022년 6월 27일 인출.

오경희, 신유림(2010). 유아-교사의 갈등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교사 변인. **유아교육연구, 30**(2), 339-356.

오선영(2013).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631-650.

유성경, 임영선, 김태원(2017). 마음챙김이 워킹맘의 인지적, 심리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1), 389-411.

윤경미, 한세영(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83-102.

윤선영, 신나나(2020). 한국 유아의 마음이론 측정을 위한 사회적 이해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41**(2), 131-145.

이석호, 이주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 연구: 양육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12**(1), 111-130.

이시자(2003). 그림동화책에 나타난 마음이론.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1-24.

이은화, 김혜련, 이희경(2021).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향유신념으로 조절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2), 375-403.

이정애(201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갈등해결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2), 371-396.

이지영, 이현숙, 장문영, 성지현(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36개월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3), 1-12.

이진숙, 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2**(6), 63-73.

이혜정, 김미경(2012). 유아용 갈등 인식 및 해결 검사도구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6**(5), 117-138.

임수정, 이대균(2015). 자유놀이활동에서 나타난 만 2 세 영아들의 또래갈등 양상과 해결전략 및 변화과정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593-628.

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2016).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인지적 유연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93-120.

전미순, 이영애(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정명자, 임유경, 김동례(201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109-1119.

정승희(2018).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자기자비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선, 하정희(2019). 대학생의 인지적 유연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우울의 관계: 진로미결정의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6**(6), 25-50.

조성웅, 김낙홍(2020). 유아의 갈등인식해결 능력에 관한 다중매개효과 분석: 지능, 마음이론,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189-211.

조은영, 임정하(2014). 대학생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185-210.

주수경, 정지인(2020). 마음이론, 인지적 실행기능, 정서적 실행기능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5**(1), 23-49.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2). **클로버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d1_600218/d1_600062.jsp에서 2022년 6월 27일 인출.

지성애, 김지은(2016). 유아의 마음이론과 언어능력 및 인지처리능력 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319-343.

한세영, 조인영, 한아름(2019).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1-14.

허심양(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숙지(2005). **개인 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예지(2022). 어머니의 외로움,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 19 영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3**(2), 125-139.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Ashby, N., & Neilsen-Hewett, C. (2012). Approaches to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toddler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10*(2), 145-161.

Astington, J. W. (2000). Language and metalanguage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nd. In J. W. Astington (Ed.), *Minds in the making: Essays in honor of David R. Olson*. Blackwell Publishing.

Atance, C. M., Bernstein, D. M., & Meltzoff, A. N. (2010). Thinking about false belief: It's not just what children say, but how long it takes them to say it. *Cognition, 116*(2), 297-301.

Baird, J. A., & Astington, J. W. (2004). The role of mental state understanding in the development of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3*, 37-49.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_____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eauchamp, M. H., & Anderson, V. (2010). SOCIAL: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Psychological Bulletin, 136*(1), 39.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 - 96.

Bock, A. M., Gallaway, K. C., & Hund, A. M. (2015). Specifying links between executive functioning and theory of mind during middle childhood: Cognitive flexibility predicts social understanding.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6*(3), 509-521.

Bornstein, M. H. (2019). Parenting infants. In *Handbook of parenting*. Routledge.

Carpendale, J. I., & Lewis, C. (2004). Constructing an understanding of mi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within social intera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7*(1), 79-96.

Christopher, C., Saunders, R., Jacobvitz, D., Burton, R., & Hazen, N. (2013). Maternal empathy and changes in mothers' permissiveness as predictors of toddlers' early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 parenting intervention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6), 769-778.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oleman, P., & Deutsch, M. (2001). *Introducing cooper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to schools: A systems approach*. In Peace, Conflict and Violence: Peace Psychology for the 21st Century. Prentice Hall.

Cowan, P. A., Cowan, C. P., & Mehta, N. (2009). Adult attachment, couple attachment, and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An integrated attachment template and family risk model.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1), 29-46.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1), 73-112.

Curran, T, & Andersen, K. K. (2017).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cognitive flexibility through expressions of maternal ca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8*, 32-34.

_____, Worwood, J., & Smart, J. (2019). Cognitive flexibility and rgenealized anxiety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destructive parent-child conflict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ports, 32*(2), 57-68.

_____. (2018).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analysis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indicators of social adjustment among mother-child dya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6*, 99-103.

Davis-Unger, A. C., & Carlson, S. M. (2008). Development of teaching skills and relations to theory of mind in preschooler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9*(1), 26-45.

Davodi-Boroujerd, G., Abasi, I., Arani, A. M., & Aslzaker, M. (2022).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behaviors: Mediating role of maternal alexithymia, children's alexithymia and emotional regulation.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17*(1), 61-71.

De Jaegher, H., Di Paolo, E., & Gallagher, S. (2010). Can social interaction constitute social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4*(10), 441-447.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1), 73 - 101.

_____,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4), 1145-1152.

Dennis, J. P., & Vande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41-253.

Dixon, J., & Moore, C. (1990). The development of perspective taking: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information and weighting. *Child Development, 61*(5), 1502-1513.

Dunn, J., & Herrera, C. (1997). Conflict resolution with friends, siblings, and mother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3*(5), 343-357.

_____,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Dunsmore, J. C., & Halberstadt, A. G.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In K. C. Barrett (Ed.),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Current research from diverse perspectives*. Jossey-Bass.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2), 149-170.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_____,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_____, Fabes, R. A., Carlo, G., Speer, A. L., Switzer, G., Karbon, M., & Troyer, D. (1993). The relations of empathy-related emotions and maternal practices to children′s comfort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2), 131-150.

_____,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_____,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Reiser, M., Cumberland, A., &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 - 211.

_____. (2006). Prosocial Behavior. In G. G. Bear & K. M. Minke (Eds.), *Children's needs III: Develop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Ensor, R., & Hughes, C. (2005). More than talk: Relations between emotion understanding and positive behaviour in toddl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43-363.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Procedure and scoring*. Arizona State University.

Farrant, B. M., Fletcher, J., & Maybery, M. T. (2014). Cognitive flexibility, theory of mind, and hyperactivity/inattention. *Child Development Research, 2014*, 1-10.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Flavell, J. H. (1999). 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knowledge about the min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21 - 45.

Galinsky, E. (1981). *Between generation: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Times Book.

Garcia, M. M., Shaw, D. S., Winslow, E. B., & Yaggi, K. E. (2000). Destructive sibling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in young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44-53.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 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2), 622-637.

Gopnik, A., & Slaughter, V. (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changes in their mental states. *Child Development, 62*(1), 98-110.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Grocke, P., Rossano, F., & Tomasello, M. (2015). Procedural justice in children: Preschoolers accept unequal resource distributions if the procedure provides equal opportuniti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0*, 197-210.

Grueneisen, S., & Tomasello, M. (2017). Children coordinate in a recurrent social dilemma by taking turns and along dominance asymme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3*(2), 265-273.

Güven, Y., Ayvaz, E., & Göktaş, İ. (2019).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of mind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tudies, 3*(1), 76-97.

Haz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4), 867-876.

Hu, Y., Emery, H. T., Ravindran, N., & McElwain, N. L. (2020).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from maternal and paternal empathy to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7), 825-835.

Huang, W., Weinert, S., von Maurice, J., & Attig, M. (2022). Specific parenting behaviors link maternal education to toddlers' language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Hughes, C., & Leekam, S. (2004). What are the links between theory of mind and social relations? Review, reflections and new directions for studies of typical and atypic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3*(4), 590-619.

Hughes, F. P. (2010).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4th ed.). Sage Publications.

Hurrell, K. E., Hudson, J. L., & Schniering, C. A. (2015).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hips with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ith an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9*, 72-82.

Ionescu, T. (2012). Exploring the nature of cognitive flexibility. *New Ideas in Psychology, 30*(2), 190-200.

Isen, A. M. (2008). Some ways in which positive affect influences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The Guilford Press.

Joshi, A. (2008). Conflict resolution between friends during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2), 133-148.

Kerr, M. M., & Nelson, C. M. (2006). *Strategies for addressing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5th ed.). Prentice Hall.

Krasnor, L. R., & Rubin, K. H. (1983). Preschool social problem solving: Attempts and outcomes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6), 1545-1558.

Laible, D. J., & Thompson, R. A. (2002). Mother-child conflict in the toddler years: Lessons in emotion, morality, an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3*(4), 1187-1203.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Ronald Press.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Martin, M. M., & Rubin, R. B. (1994).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flexibility measure. *South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9*(2), 171-178.

_____, Anderson, C. M., & Thweatt, K. S. (1998). Aggressive communication trait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cognitive flexibility scale and the communication flexibility scal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3*(3), 531-540.

Matsumoto, D., Yoo, S. H., & Fontaine, J. (2008). Mapping expressive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play rules and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55-74.

Mazzone, S., & Nader-Grosbois, N. (2016). How are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emotions related to their theory of mind abilities?. *Psychology, 7*(2), 166-179.

Moll, H., & Tomasello, M. (2007). Cooperation and human cognition: The Vygotskian intelligence hypothesi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2*(1480), 639-648.

Moore, C., Jarrold, C., Russell, J., Lumb, A., Sapp, F., & MacCallum, F. (1995). Conflicting desire and the child's theory of mind. *Cognitive Development, 10*(4), 467-482.

Nelson, J. A., Boyer, B. P., Villarreal, D. L., & Smith, O. A. (2017). Relations between mothers' daily work, home, and relationship stress with characteristics of mother-child conflict inter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4), 431-441.

Nelson, K., Plesa, D., & Henseler, S. (1998). Children's theory of mind: An experiential interpretation. *Human Development, 41*, 7-29.

Noakes, M. A., & Rinaldi, C. M. (200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er conflic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881-891.

Onishi, K. H., & Baillargeon, R. (2005). Do 15-month-old infants understand false beliefs?. *Science, 308*(5719), 255-258.

Ontai, L. L., & Thompson, R. A. (2008). Attachment, parent - child discourse and theory of mind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7*(1), 47-60.

Perner, J., Ruffman, T., & Leekam, S. R. (1994). Theory of mind is contagious: You catch it from your sibs. *Child Development, 65*(4), 1228-1238.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Free Press.

Plunkett, K., & Marchman, V. (1991). U-shaped learning and frequency effects in a multilayered perceptron: Implications for child language acquisition. *Cognition, 38*(1), 43-102.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Premack, D., & Woodruff, G. (1978).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4), 515-526.

Randell, A. C., & Peterson, C. C. (2009). Affective qualities of sibling disputes, mothers' conflict attitude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8*(4), 857-874.

Ross, H. S., & Lazinski, M. J. (2014). Parent mediation empowers sibling conflict resolu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2), 259-275.

Ruffman, T., Slade, L., Devitt, K., & Crowe, E. (2006). What mothers say and what they do: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theory of mind, language and conflict/cooper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5-124.

Sandy, S. V. (2006). The development of conflict resolution skills: Preschool to adulthood. In M. Deutsch, P. T. Coleman, & E. C. Marcus (Eds.),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Wiley Publishing.

Shewark, E. A., & Blandon, A. Y. (2015). Mothers' and fathers'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 within-family model. *Social Development, 24*, 266-284.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laughter, V., & Repacholi, B. (2004). Introduc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What are we investigating?. I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Psychology Press.

_____, Denni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545-564.

_____, Imuta, K., Peterson, C. C., & Henry, J. D. (2015). Meta analysis of theory of mind and peer popularity in the preschool and early 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86*(4), 1159-1174.

Sokol, B. W., Chandler, M. J., & Jones, C. (2004). From mechanical to autonomous ag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moral judgements and their developing theories of min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3*, 19-36.

Spivack, G., & Shure, M. B.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solving real-life problems*. Jossey-Bass.

Steinberg, L. (2005).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in adolesc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2), 69-74.

Stocker, C. M., Burwell, R. A., & Briggs, M. L. (2002). Sibling conflict in middle childhood predicts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1), 50.

Suh, B. L., & Kang, M. J. (2020). Maternal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Gender difference in mediation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 144 - 154.

Sun, Y., Lam, C. B., & Chung, K. K. H. (2021).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reactions to child negative emotions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5*(5), 671-679.

Sung, J., & Hsu, H.-C. (2014). Collaborative mother - toddler communication and theory of mind development at age 4.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381 - 391.

Symons, D. K., & Clark, S. E.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 child relationships and theory of mind in the preschool period. *Social Development, 9*(1), 3-23.

Tahiroglu, D., Moses, L. J., Carlson, S. M., Mahy, C. E., Olofson, E. L., & Sabbagh, M. A. (2014). The 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parent-report measure for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theories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50*(11), 2485-2497.

Tao, A., Zhou, Q., & Wang, Y. (2010).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rospective relations to Chinese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2), 135 - 144.

Tomasello, M., Melis, A. P., Tennie, C., Wyman, E., & Herrmann, E. (2012). Two key steps in the evolution of human cooperation: The interdependence hypothesis. *Current Anthropology, 53*(6), 673-692.

Tsao, F. M., Liu, H. M., & Kuhl, P. K. (2004). Speech perception in infancy predicts language development in the second year of lif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5*(4), 1067-1084.

Ward, K. P., & Lee, S. J. (2020).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responsiveness, and child wellbeing among low-income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105218.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1), 79-97.

Watson, A. C., Nixon, C. L., Wilson, A., & Capage, L. (1999). Social interaction skills and theory of mind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86 - 391.

Weimer, A. A., Dowds, S. J. P., Fabricius, W. V., Schwanenflugel, P. J., & Suh, G. W. (2017). Development of constructivist theory of mind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d its relation to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4*, 28-45.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The MIT Press.

_____ (1992). *The child's theory of mind*. The MIT Press.

_____, & Liu, D. (2004). Scaling of theory of mind tasks. *Child Development, 75*(2), 523-541.

부 록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부록 2> 유아 갈등해결능력 검사
<부록 3> 갈등 장면 별 점수 빈도 및 평균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유아의 갈등해결능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어머니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유아의 사회·인지발달과 관련한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 연구의 결과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지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신 어머니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담당자 : 박 유 경
지도교수 : 이 강 이
E-mail :

【안내사항】
1. 2017년생 유아를 양육하고 계신 어머니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지에서 '자녀'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말합니다.
3.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보내드린 질문지 봉투를 밀봉하며 7일 이내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사고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 **하나**를 골라 체크해 주세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황 파악을 잘한다.	1	2	3	4	5	6	7
2.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운 상황: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	1	2	3	4	5	6	7
3.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1	2	3	4	5	6	7
4.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7
5. 나는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편이다.	1	2	3	4	5	6	7
6. 나는 원인을 단정하기 전에, 당장 생각나지 않는 다른 정보들도 더 찾아본다.	1	2	3	4	5	6	7
7.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생각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8. 나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많으면 버겁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10.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6	7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1	2	3	4	5	6	7
12.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6	7
13.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행동 하기에 앞서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1	2	3	4	5	6	7
14. 나는 자주,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1	2	3	4	5	6	7
15. 나는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6. 나는 원인을 찾을 때, 가능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고려한다.	1	2	3	4	5	6	7
17. 나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만한 힘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8.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멈춰 서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6	7
19. 나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0.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1	2	3	4	5	6	7

II. 이 설문은 자녀(이 연구에 참여한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 특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어머니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선의의 거짓말, 놀이 모두 포함)	1	2	3	4
2.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한다. (예: "전에는 컵으로 마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쉽다고 생각해요.")	1	2	3	4
3.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이는 이것을 개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고양이었어요.", "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왔어요.")	1	2	3	4
4. 상대방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설득하려고 한다. (예: 사자를 보고 호랑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갈기 등의 이유로 사자임을 설득한다.)	1	2	3	4
5. 장난으로도 다른 사람을 잘 속인다. (예: 과자 상자가 꽉 차 있는데 비어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6.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나는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지금이 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	2	3	4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한다. (예: “엄마는 그것을 상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돌고래라고 생각해요.”)	1	2	3	4
8.	전문가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 의사 선생님은 병을 치료하는 법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이해한다.)	1	2	3	4
9.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 “우리는 공원에 갈지도 몰라요.”, “내 신발은 아마도 밖에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10.	숨바꼭질을 잘 한다. (예: 찾기 힘들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1	2	3	4
11.	자신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다. (예: “○○이가 말해줬어요.”, “놀이터에서 그 일을 봤어요.”,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	2	3	4
12.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설명을 잘 해준다.	1	2	3	4
13.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는 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1	2	3	4
14.	가르쳐주고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아빠가 그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노래는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1	2	3	4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5.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뱀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도마뱀이었어요.”)	1	2	3	4
16.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예: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17.	능숙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1	2	3	4
18.	부모가 부모의 시선 반대 방향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9.	눈을 감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0.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나는 오리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1	2	3	4
21.	쉽게 들통날 거짓말을 한다. (예: 얼굴에 초콜릿 범벅을 하고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고 말한다.)	1	2	3	4
22.	원하는 것과 실제로 갖게 된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1	2	3	4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3.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려한다. (예: 친구와 교대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장난감을 친구와 공유한다, 어떤 게임을 할지 다른 친구들과 의논한다.)	1	2	3	4
24.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 "엄마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나는 주스를 좋아해요.")	1	2	3	4
25.	바라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1	2	3	4
26.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1	2	3	4
27.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이는 과자를 좋아해요.", "○○이는 집에 가고 싶어해요.")	1	2	3	4
28.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1	2	3	4
29.	의도했던 것과 결과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이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버렸어요.")	1	2	3	4
30.	다른 사람의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아차리는 것을 어려워한다.	1	2	3	4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1.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것보다 나쁘다는 것을 이해한다.	1	2	3	4
32. 의도적인 행동과 실수로 인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 “의도적으로 장난감을 가져가는 것과 실수로 장난감을 가져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1	2	3	4
33. 놀림을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	1	2	3	4
34.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그 애는 일부러 그랬어요.”, “나는 엎지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1	2	3	4
35.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의 이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 게임을 하려고 공을 던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공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36. 같은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 어떤 아이는 개를 좋아하지만, 다른 아이는 개를 무서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37. 원하지 않는 것을 선물로 받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좋아하는 척 한다.	1	2	3	4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8. 상충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행을 가는 건 기쁘지만, 친구들을 두고 가서 슬퍼요.”)	1	2	3	4
39. 목소리나 얼굴 표정만으로는 엄마나 아빠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 목소리나 표정만으로 화난 상태와 슬픈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1	2	3	4
40. 자신이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41.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나는 행복해요.”, “○○이는 화가 났어요.”)	1	2	3	4
42.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예: 당신이 왜 우는지 알고 싶어 한다.)	1	2	3	4

III. 다음은 평소 자녀(이 연구에 참여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문항(a~f 전체)에 제시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보이실 행동이나 반응과 가장 가까운 답변의 번호를 골라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각 질문에서 하위 행동의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의 평소 양육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 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각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답해주십시오.
- **a-f 문항에서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예시>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보내 화를 가라앉게 한다.	1	2	3	4	5	✓ 6	7
b. 아이에게 화를 낸다.	1	2	3	4	✓ 5	6	7
c. 아이가 생일파티(또는 또래 모임)에 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예: 파티(또는 모임) 후 몇몇 친구들을 초대한다.)	1	2	3	4	5	6	✓ 7
d. 아이에게 파티(또는 또래모임)에 빠진 것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1	2	3	4	✓ 5	6	7
e. 아이가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아이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 6	7
f. 아이를 위로해주고 파티(또는 또래모임)에 못 가서 나빠진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1	2	✓ 3	4	5	6	7

1. 만약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친구의 생일파티(또는 또래 모임)에 갈 수 없게 되어 화가 났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보내 화를 가라앉게 한다.	1	2	3	4	5	6	7
b.	아이에게 화를 낸다.	1	2	3	4	5	6	7
c.	아이가 생일파티(또는 또래 모임)에 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예: 파티(또는 모임) 후 몇몇 친구들을 초대한다.)	1	2	3	4	5	6	7
d.	아이에게 파티(또는 또래모임)에 빠진 것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1	2	3	4	5	6	7
e.	아이가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아이를 격려해 준다.	1	2	3	4	5	6	7
f.	아이를 위로해주고 파티(또는 또래모임)에 못 가서 나빠진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1	2	3	4	5	6	7

2. 만약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자전거는 고장이 나서 아이가 기분이 나빠지고 운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1	2	3	4	5	6	7
b.	아이를 위로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한다.	1	2	3	4	5	6	7
c.	아이에게 별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 애기나 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d.	다음에는 어떻게 자전거를 정지시켜야 하는지 알려준다.	1	2	3	4	5	6	7
e.	아이에게 울고 싶을 때까지 울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f.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거나, 계속 울면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게 하겠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3. 만약 우리 아이가 상품으로 받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울고 있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가 부주의 한 것에 대해 흥분해서 소리친다.	1	2	3	4	5	6	7
b.	아이에게 별일 아니라고 한다.	1	2	3	4	5	6	7
c.	아이에게 찾아보지 않았던 장소를 생각해 보게 한다.	1	2	3	4	5	6	7
d.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아이의 주의를 바꿔준다.	1	2	3	4	5	6	7
e.	아이에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울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f.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4. 만약 우리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떨면서 울고 있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에게 계속 울면 좋아하는 일들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 TV를 못 보게 한다.)	1	2	3	4	5	6	7
b.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6	7
c.	주사 맞는 일은 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d.	울어서 엄마를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e.	주사를 맞기 전이나 후에 아이를 위로해준다.	1	2	3	4	5	6	7
f.	별로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준다. (예: 몸에 힘을 주지 말라고 하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해준다.)	1	2	3	4	5	6	7

5. 아이의 친구 집에 아이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아이 혼자 친구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아이가 신경질을 내고 있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에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에 대해 말해줌으로써 아이를 달래준다.	1	2	3	4	5	6	7
b.	엄마가 없어도 즐겁게 친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예: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인형을 가지고 간다.)	1	2	3	4	5	6	7
c.	아이에게 별일 아닌데 화를 낸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d.	아이에게 떼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e.	아이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아진다.	1	2	3	4	5	6	7
f.	아이가 자신의 신경질이 나고 화난 감정에 대해 말하게 한다.	1	2	3	4	5	6	7

6. 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계속 실수를 하여 당황해서 운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를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게끔 도와준다.	1	2	3	4	5	6	7
b.	아이에게 그 일이 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c.	나 자신이 기분이 언짢고 당혹스럽다.	1	2	3	4	5	6	7
d.	아이에게 가서 집에 가자고 말한다.	1	2	3	4	5	6	7
e.	아이가 자신이 느낀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준다.	1	2	3	4	5	6	7
f.	엄마와 함께 연습해서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	1	2	3	4	5	6	7

7. 만약 우리 아이가 운동 경기(또는 발표회)에 참가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긴장하고 있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가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관중들을 보지 말라고 한다.)	1	2	3	4	5	6	7
b.	아이가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줘서 긴장을 풀어준다.	1	2	3	4	5	6	7
c.	부모인 나 자신도 초조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있는다.	1	2	3	4	5	6	7
d.	아이에게 애기같이 굴지 말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e.	아이에게 네가 만약 계속 초조해한다면 집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f.	아이가 자신의 초조하고 긴장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1	2	3	4	5	6	7

8. 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역력하게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실망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1	2	3	4	5	6	7
b.	아이에게 선물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c.	아이가 실망하는 것에 대해 관여치 않는다.	1	2	3	4	5	6	7
d.	아이에게 지나친 행동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e.	친구의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아이를 꾸짖는다.	1	2	3	4	5	6	7
f.	재미있는 놀이를 하여 아이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6	7

9. 만약 우리 아이가 겁이 많아서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후 잠을 자러 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가 무엇이 무서웠는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1	2	3	4	5	6	7
b.	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기분이 언짢아진다.	1	2	3	4	5	6	7
c.	아이에게 너무 겁내지 말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d.	아이가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예: 인형을 가지고 자거나 불을 켜고 잔다.)	1	2	3	4	5	6	7
e.	자러 가지 않으면 다시는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f.	아이가 무서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1	2	3	4	5	6	7

10. 만약 우리 아이가 공원에 갔는데 다른 아이가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울려고 한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침착하게 지켜본다.	1	2	3	4	5	6	7
b. 아이에게 만약 울기 시작한다면 곧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c. 아이에게 기분이 나쁠 때에는 우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d.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이가 즐거운 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6	7
e. 아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6	7
f. 아이에게 곧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11.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그 중 한 아이가 우리 아이를 놀렸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분을 참지 못해서 울려고 한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에게 그 일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b.	나 자신도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6	7
c.	아이에게 곧장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1	2	3	4	5	6	7
d.	다른 아이가 자신을 괴롭힐 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6	7
e.	아이를 위로해준 후 그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함께 게임을 한다.	1	2	3	4	5	6	7
f.	자신이 놀림을 당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1	2	3	4	5	6	7

12. 만약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겁내고 싫어해서 손님이 오면 언제나 자기 방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나는 _____.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아이에게 손님들을 만날 때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예: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손님들을 만난다.)	1	2	3	4	5	6	7
b.	아이에게 낯선 사람을 겁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c.	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7
d.	아이의 반응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편하다.	1	2	3	4	5	6	7
e.	아이에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6	7
f.	아이에게 애기같이 굴지 말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IV. 아래의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체크하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거의 드물게 (1일 이하)	때로 (1-2일)	상당히 (3-4일)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0	1	2	3
2.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0	1	2	3
4.	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다.	0	1	2	3
5.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꼈다.	0	1	2	3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0	1	2	3
10.	무서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0	1	2	3
14.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0	1	2	3
16.	인생이 즐거웠다.	0	1	2	3
17.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0	1	2	3
20.	일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 없었다.	0	1	2	3

V. 다음은 연구 참여 아동과 어머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1. 이 연구에 참여한 자녀(만4세 유아)의 출생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_명중_째)
2. 이 연구에 참여한 자녀(만4세 유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3. 자녀(만4세 유아)의 출생연월을 기입해 주십시오. (___년 ___월)
4. 부모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만 나이 _____	아버지 만 나이 _____

5. 부모님의 교육 정도는 어떠합니까?

어머니 _____	아버지 _____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6. 부모님의 근로형태는 어떠합니까?

어머니 _____	아버지 _____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무직

7.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세금공제 전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③ 4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④ 6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⑤ 800만 원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유아 갈등해결능력 검사

유아 대상 갈등해결능력 과제 도구

유아는 13가지 상황에 대한 그림 자료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아가 그림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느끼게 될 기분과 그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성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동성 또래와의 놀이 상황으로 한정하여 그림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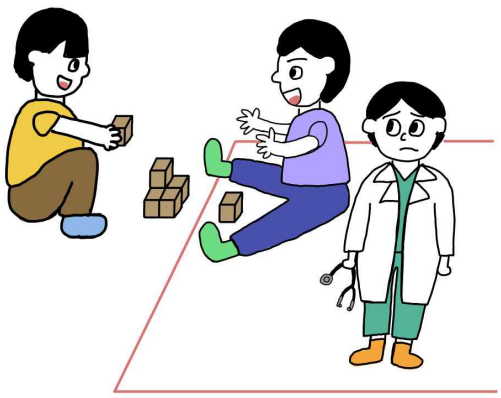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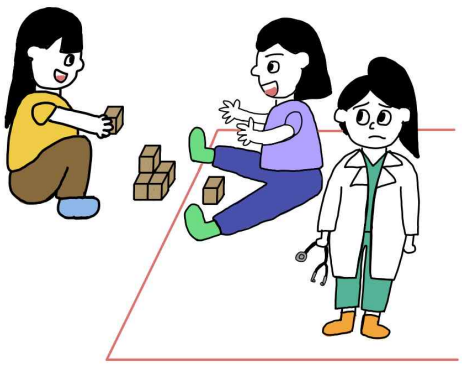
상황 1. 거의 완성해 가는 퍼즐의 조각 하나를 같은 반 친구가 빼앗아 갔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상황 2.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혼자서만 계속 그네를 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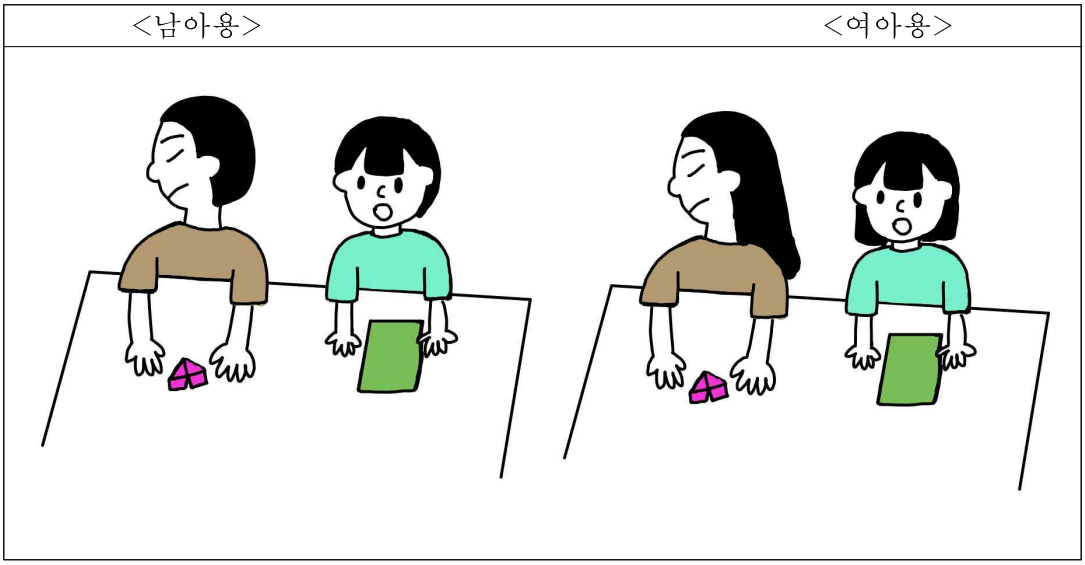
상황 3. 쌓기 놀이를 하던 같은 반 친구가 병원 놀이를 하는 곳까지 놀이 공간을 넘어와서 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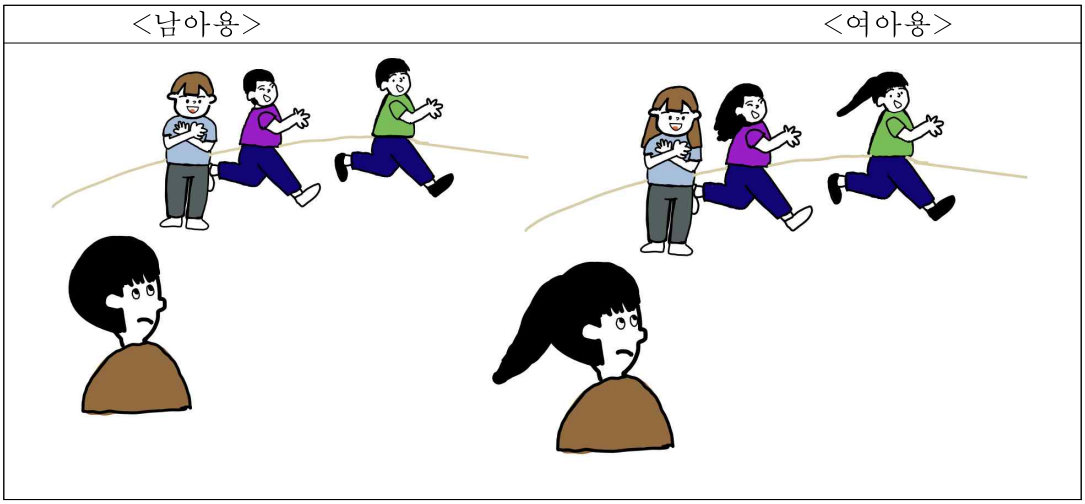
상황 4. 손을 씻기 위해 기다리는 데 같은 반 친구가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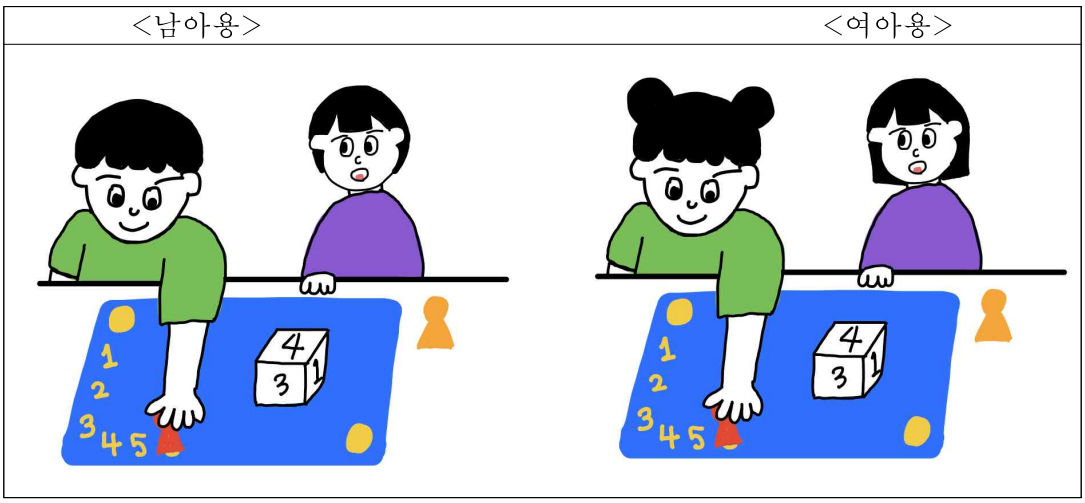
상황 5. 색종이로 하트 접는 방법을 알고 싶어, 같은 반 친구에게 색종이 접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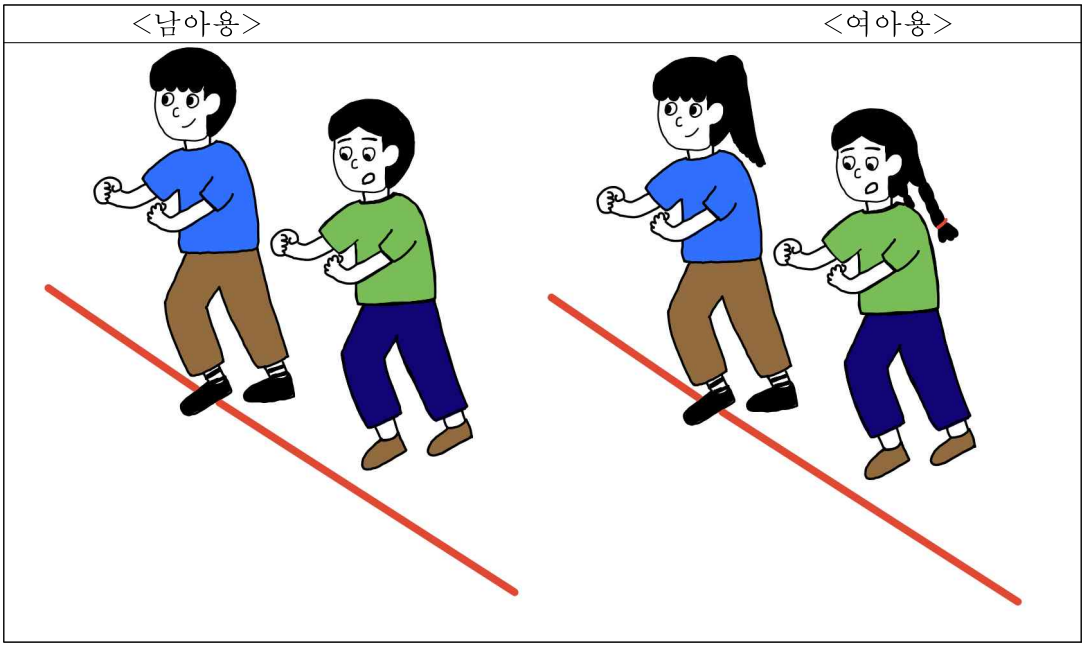
상황 6. 얼음땡 놀이(잡기놀이)를 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에게 그 놀이에 끼워 달라고 부탁했으나 친구는 거절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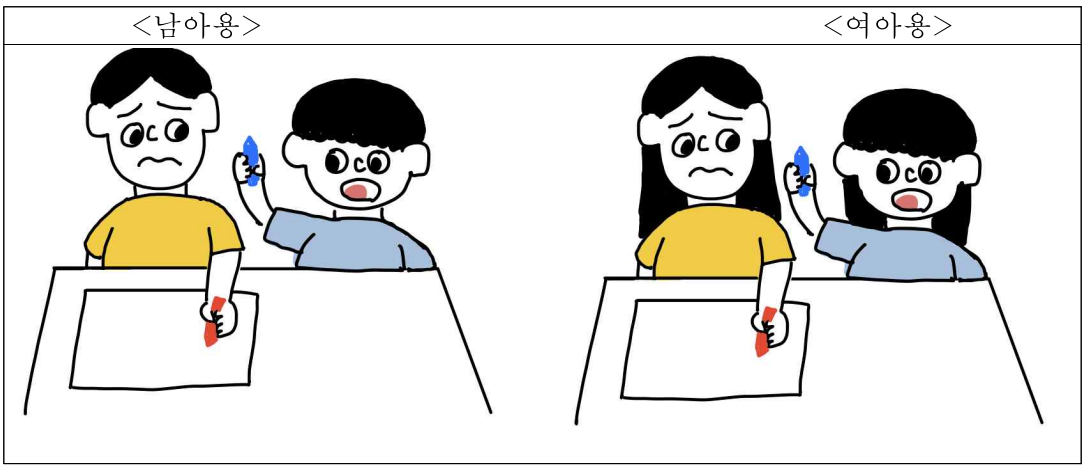
상황 7. 같은 반 친구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던 중, 친구의 주사위가 4가 나왔는데 4칸이 아닌 6칸을 가려 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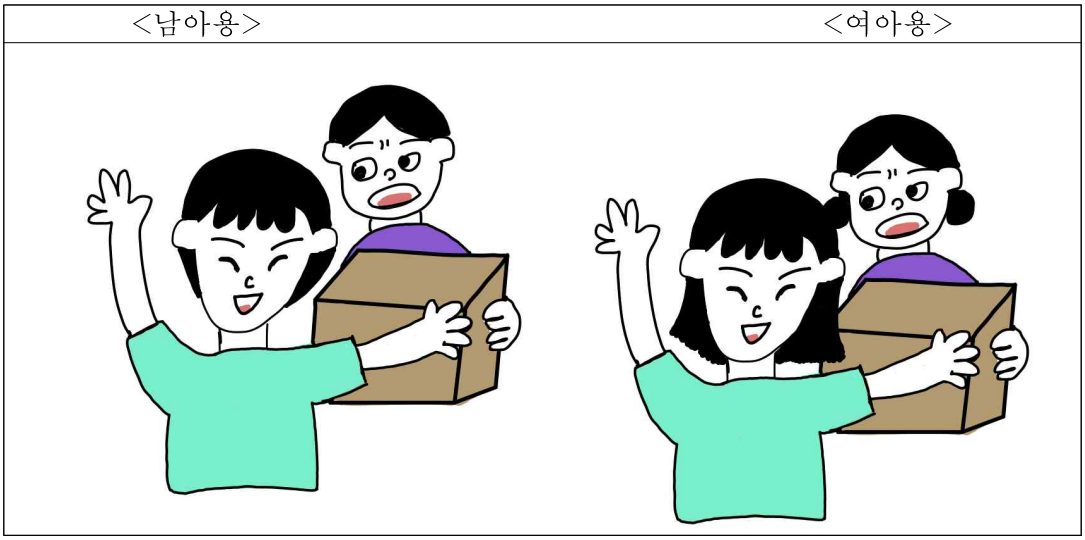
상황 8.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반 친구가 출발선을 지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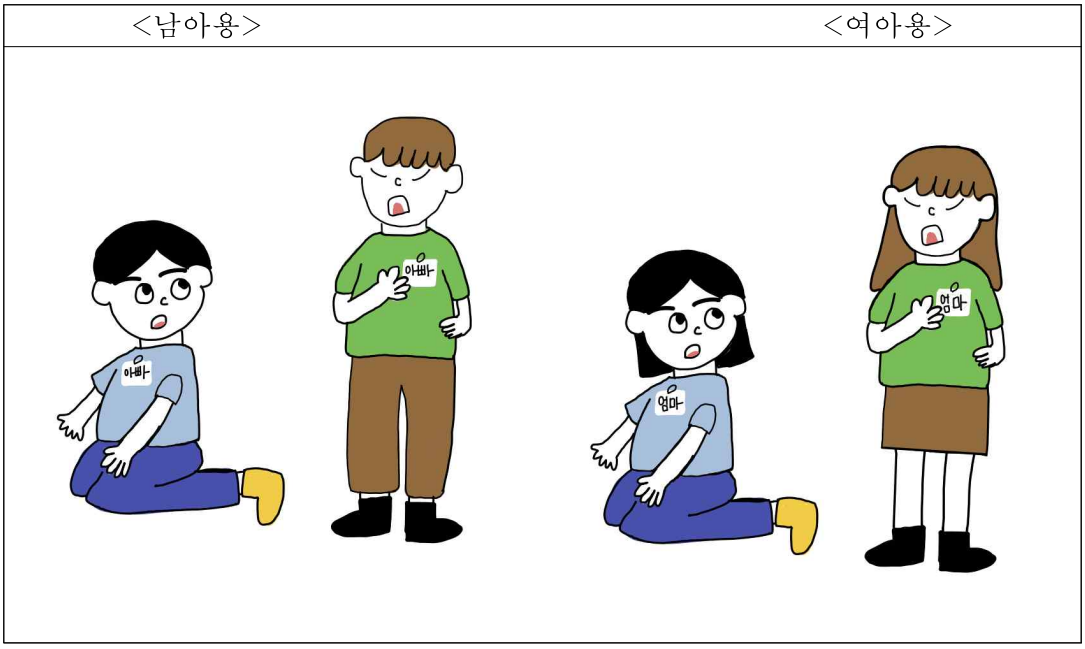
상황 9. 빨간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같은 반 친구가 파란색 크레파스로 그려야 한다고 그림 그리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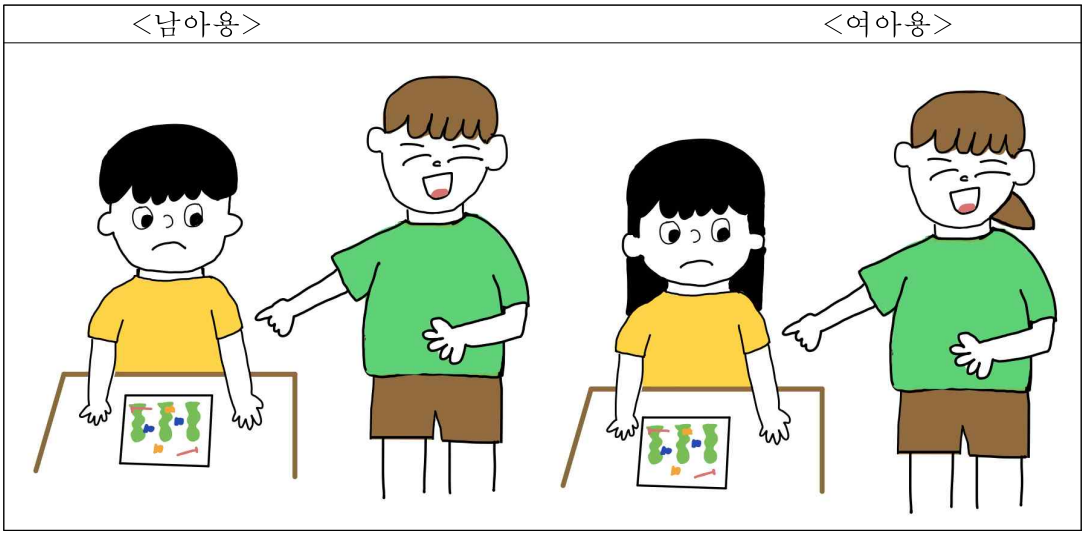
상황 10. 물건을 들고 가는데 앞에 있는 같은 반 친구가 느릿느릿 장난을 치며 가서 빨리 가라고 말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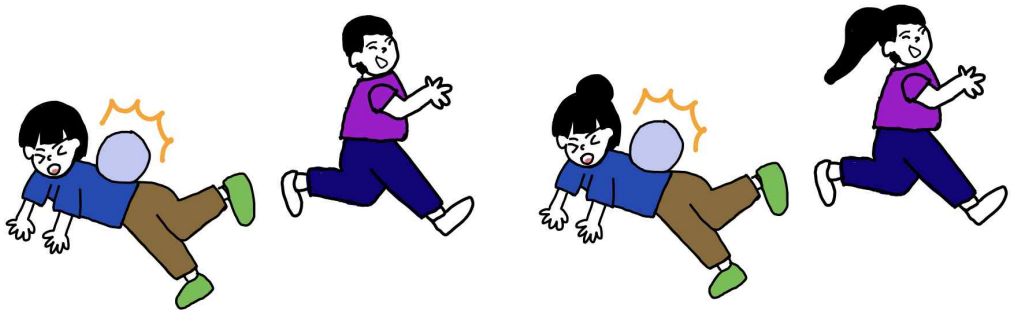
상황 11. 놀이 시간에 엄마(아빠) 역할을 맡아 놀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나중에 와서 엄마(아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 12. 열심히 그린 나의 그림 작품을 같은 반 친구가 '못생겼어'라고 놀려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 13. 동작실(혹은 놀이터 등)에서 같은 반 친구가 던진 공에 맞았는데,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없이 자신이 놀던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부록 3> 갈등 장면 별 점수 빈도 및 평균

N = 19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점	14	6	6	8	6	3	6	7	4	7	7	9	19
2점	8	4	3	5	7	5	7	7	5	2	6	16	5
3점	8	18	13	16	17	11	13	16	19	13	13	12	17
4점	28	16	16	17	30	22	17	15	15	14	8	30	32
5점	114	76	96	60	63	110	51	40	94	121	56	100	97
6점	11	33	24	9	56	32	9	15	20	29	14	17	5
7점	0	4	10	68	3	1	82	80	2	1	0	0	13
8점	7	23	19	5	7	7	6	6	25	4	37	4	2
9점	1	11	4	3	2	0	0	5	7	0	50	3	1
M	4.54	5.35	5.22	5.40	4.91	4.92	5.54	5.61	5.23	4.84	6.28	4.49	4.39
SD	1.46	1.82	1.59	1.77	1.48	1.16	1.72	1.85	1.71	1.17	2.36	1.48	1.57

주) 1: 갈등장면 1, 2: 갈등장면 2, 3: 갈등장면 3, 4: 갈등장면 4, 5: 갈등장면 5, 6: 갈등장면 6, 7: 갈등장면 7, 8: 갈등장면 8, 9: 갈등장면 9, 10: 갈등장면 10, 11: 갈등장면 11, 12: 갈등장면 12, 13: 갈등장면 13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on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as Mediators

Park, Yookye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reveal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on her child'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In particular, a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indirectly affects the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specifically through the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pairs of 4-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famil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South Korea.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Through the questionnaire, mothers recorded their responses to questions pertaining to cognitive flexibility,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depression,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Children participated in a face-to-face survey with the researcher and were tested on their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in Korean) and conflict resolution ab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ual mediation model analysis using PROCESS macro, and bootstrapping analysis. The IBM SPSS Statistics 28.0 program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Among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expressive encouragement, emotion-focused reactions, and problem-focused reaction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other's punitive reactions, minimization, and distress. Meanwhil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In particular,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expressive encouragement, emotion-focused reactions, and problem-focused reactions, while it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punitive reactions and distress. But the minimization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the other hand, demonstrat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hildren's theory of mind. Among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ren's theory of min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expressive encouragement, emotion-focused reactions, and problem-focused reactions, while it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unitive reactions and distres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inimization.

Seco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indirectly affects the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through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the children's theory of mind. Specifically, the direction of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took in regards to the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differed depending on the mother's reaction type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 particular, o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emotion-focused reaction, problem-focused reaction, and punitive reaction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prominently drawn. When a mother exhibited a higher level of cognitive flexibility, she also tended to show higher levels of emotion-focused reaction and problem-focused reaction, and

lower levels of punitive reaction. This indicates that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has an effect on her child'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employing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as the mediators.

This study identified the mechanism by which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indirectly supports the growth of the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ath of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differs according to the mother's reaction type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rough such a mechanism,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mothers' personal factors and specific parenting behaviors in promoting children'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These findings can be helpful in the expansion of parental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ability and policy proposals to support them.

Key Words : young children, conflict resolution ability, cognitive flexibility,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ory of mind, dual medi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20-25589